[UCI]I804:24011-200000240061

2010년 8월

석사학위 논문

16세기 사대부가 여성의 家政運營과 生活

- 『眉巖日記』에 나타난 宋德峯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채 민 미

16세기 사대부가 여성의 家政運營과 生活

- 『眉巖日記』에 나타난 宋德峯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Gentry Women's Management and Life in the 16th century

- Focusing on the Song Duckbong in 『MiAmIlGi』 -

2010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채 민 미

16세기 사대부가 여성의 家政運營과 生活

- 『眉巖日記』에 나타난 宋德峯을 중심으로 -

指 導 敎 授　金　景　淑

이 論文을 文學碩士 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04月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채　민　미

蔡民美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委 員 長	朝鮮大學校 敎 授	李 鐘 範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崔 震 奎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金 景 淑 印

2010年 05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목 차

ABSTRACT ····· i

Ⅰ. 머리말 ····· 1

Ⅱ. 宋德峯의 家系와 家政運營의 배경 ····· 5
1. 宋德峯의 家系 ····· 5
2. 유희춘의 미암일기와 庭訓 ····· 11

Ⅲ. 宋德峯의 家庭生活 ····· 18
1. 同僚的 夫妻관계 ····· 18
2. 가족의 구심적 역할 ····· 25
3. 친・인척 교류 ····· 30

Ⅳ. 宋德峯의 家事經營 ····· 34
1. 경제적 책임 ····· 34
2. 봉제사・접빈객 ····· 41

Ⅴ. 맺음말 ····· 47

참 고 문 헌 ····· 50

ABSTRACT

A Study of the Gentry Women's Management and Life in the 16th century

- Focusing on the Song Duckbong in 『MiAmIlGi』 -

By Chae Min Mi
Advisor : Prof. Kim Kyeong Sook, Ph.D.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thesis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ole and management in the family of Song Duckbong, Yu hi-chun's spouse by analying MiAmIlGi of Yu hi-chun.

In the first place she plays a large part on her family. She not only ran a household she but played roles of needle woman, mistress, relief of the poor. She was the chief support of the family and held herself responsible for household economuy.

Yu and Song are one of the most hamonious couple, whereas the wife had leading roles in many aspects.

In general, the women at that time enjoyed autonomy and progressiveness from thetr status. Tey were not prohibited to social meetings with men. It stems from equal inheritance rights which was

pervasive in those days.

Song Duckbong, thinking appears in these literary works. As shown above, she held her own dignified behavior against her husand. She entrusted even her parent's to her husband. Besides exchanging poem with her husband, she played a role such as a moral supporter, and what is more, enjoyed sincerely conjugal love easily standing comparison with married coulpe of today.

In the 16th century before Patriarchal oder took root while determining women's activities to the household, It emphasizes the functional, ideal female for both managing a household and showing the strong vitality for maintaining a patriarchal society in national and society.

So being based on that, women's home management could maintain and strengthen a patriarchal society in structure.

but in the other side, It makes the women show herself at one's best through managing a household.

The criticism that the spontaneity of the women contributes to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a patriarchal society itself is because of a broad interpretation and not seeing the substance.

Through the proof that both facts the active women making area herself and relation of coexistence discriminating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both sexes, It finds a clue about established criticism.

Also through a lineage of Song Duckbong, arranging and showing the status and role of Hongju Song in the terms of dynasty in Honam clearly.

Ⅰ. 머리말

유교에서 家庭이 갖는 의미를 검토해본다면, 가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미 부여가 필요하다. 가정은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는 부모, 자식, 부부의 사적관계가 중심을 이루지만, 祖上祭祀를 통해 연결되는 家門 중심의 혈연 공동체의 한 단위로서 존재하였다. 때문에 유교가 여성에게 부여하는 역할은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데 매우 필수적인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당시 국가 사회적으로 가부장제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여성의 활동을 家內로 설정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가정생활을 강조하였다. 이에 여성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시부모를 봉양하고 가족화합에 기해야 했으며, 奉祭祀와 손님접대 등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가정은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단순한 집안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관리적인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당시 여성의 권한은 家庭의 범주를 벗어나 살림을 책임지고 다스리는 '家政' 수준으로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家庭에서 행해지는 포괄적인 여성의 활동을 ‘家政’이라는 보다 능동적인 개념으로 확대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宋德峯(1521-1578)이라는 사대부가 여성의 적극적인 활동상을 통해 그 家政運營의 구체적인 모습을 밝혀보겠다.

덕봉에 관한 기록은 그의 남편 柳希春(1513-1577)[1]이 남긴 『眉巖日記』[2]

1) 柳希春은, 본관 善山, 자는 仁仲, 호는 眉巖, 시호는 文節로 전라남도 해남 해리출생이다. 아버지 유계린과 어머니 최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유희춘의 집안은 풍족한 집안은 아니었으나 父인 유계린이 崔溥의 사위가 되어 해남으로 이주함으로써 선산유씨가 호남에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외할아버지 崔傅의 학통을 계승하여 李恒·김인후 등과 함께 호남지방의 학풍조성에 기여하였다.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담양의 義巖書院, 무장의 忠賢祠, 종성의 鐘山書院에 제향되었다. 남긴 저서에 『眉巖日記』·『續蒙求』·『歷代要錄』·『續諱辨』·『川海錄』·『獻芹錄』·『朱子語類箋解』·『詩書釋義』·『玩心圖』등이 있으며, 편서로 『國朝儒先錄』이 있다.

2) 眉巖日記는 柳希春의 친필일기로 위로 조정의 정치사로부터 아래로 집안의 대소사 및 개인의 신변잡기에 이르기까지 11년여 동안 저자가 서울과 고향을 오가면서 겪은 경험담이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실려 있다. 또한 임진왜란 때 史草가 소진됨에 따라 光海君 元年(1609)에 『宣祖實錄』을 撰修하게 되자, 이이의 『石潭日記』·기대승의 『論思錄』 등과 함께 『眉巖日記』가 선조 초부터

를 통해 전하고 있어, 16세기 사대부가 여성 생활상의 단면을 생생하게 재현해 준다. 16세기는 남존여비 사상이 확정되지 않아서 고려시대의 생활문화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조선시대 관련 자료의 대부분은 17세기 이후의 자료들이고, 그 이전의 자료는 정치적 자료인 왕조실록에 주로 의존하는 바라서, 일반적으로 남존여비가 우리 고유의 전통인 것처럼 알려져 있다. 때문에 당시의 생활문화를 알 수 있는 핵심자료로서 『미암일기』는 그 가치를 인정받고 최근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기자료의 성격상 연구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3] 그 중 宋德峯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초창기에는 그녀의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대표 여류문인으로써 자리매김을 시도 하였다.[4] 그러다 점차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주목하는 연구가 활발히 논의되면서 최근 宋德峯 집안의 부부 및 가족생활분석을 통해 家內 주도적인 宋德峯의 역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5]

11년간의 사료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 그 중에서도『眉巖日記』와 『宣祖實錄』을 대비하여 같은 기사가 수록된 일자를 조사해본 결과, 1567.10.9.-1576.7.25.까지 총 861日分의 기사가 참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송재용,「『眉巖日記』의 書誌와 史料的 價値」, 1998.) 현재 보물 260호로 지정되어 眉巖의 종가인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모현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모현관 뒷 편에는 眉巖의 사당이 마련되어 있다.

3) 윤희면, 「眉巖 柳希春의 생애와 저술」, 『금호문화』 9, 1984 ; 구완회, 「조선 중엽 사족얼자녀의 속량과 혼인 -眉巖日記를 통한 사례 검토-」, 『경북사학』 8, 1985 ; 이호열, 「16세기 말 사대부가 객청 조영 사례 연구-유희춘의 眉巖日記草를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2, 1992 ; 정재훈, 「眉巖 유희춘의 생애와 학문」, 『남명학연구』 3, 1993 ; 성교진, 「眉巖 柳希春」, 『한국인물유학사』 2, 1996 ; 이성임, 「16세기 조선 양반관료의 사환과 그에 따른 수입 -유희춘의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145, 1995 ; 「조선중기 어느 양반가문의 농지경영과 노비사환 -유희춘의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80, 1995 ; 「조선 중기 유희춘가의 물품구매와 그 성격」, 『한국학연구』 9, 1988; 「16세기 柳希春家 海南造舍와 物力동원」(『인하사학』 제10집, 2003), 2002. 등은 유희춘에 대한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글이다.

4) 송재용, 「여류문인 송덕봉의 생애와 문학」, 『국문학논집』 제15집, 1997 ; 「宋德峯의 生涯와 時世界」, 『퇴계학연구』 제17집,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3,
정창권, 「『眉巖日記』에 나타난 宋德峯의 일상생활과 창작활동」, 『한국어문학회』, 2002; [16세기 여성시인 송덕봉 작품집」, 『한국여성문학학회』 9호, 2003 ;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사계절, 2003(16세기 양반가정의 일상을 관직생활・살림살이・나들이・재산증식・부부갈등・노후생활 등 을 6개의 테마로 나누어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당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宗法制의 적용이 조선 여성을 유교 가부장제 질서 속으로 확고하게 편입시켰다고 보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 안에서도 여성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찾아내려는 노력 또한 적극적으로 전개 되고 있다.[6]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는 家父長制의 최대 피해자인 여성이 스스로 유교적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오히려 가부장제를 강화, 고착시키는데 일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7] 그러나 이러한 결과론적 비판에 앞서, 기본적으로는 남녀의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의 원칙을 주축으로 성차를 인정하는 상호보완 관계로 파악하는 보다 적극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8]

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미암일기』를 기본 자료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우선 Ⅱ장에서는 洪州宋氏의 호남 지역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정리하고, 당시 사대부들이 혼인을 매개로 서로 유대를 강화시켜 나가는 측면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의 적극적인 家政運營의 원천이 무엇인지 그 형성 배경과 아울러 당시 사대부가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어떤 요인을 중점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하였는지 대해서도 유추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아내, 어머니, 주부, 며느리로써의 夫妻 및 가족·친족 관계 등 각 가족 구성원들을 보살피는 정신적 지주로써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Ⅳ장에서는 안팎의 살림살이를 비롯한 봉제사·접빈객은 물론 家舍

---

5) 박미해, 「16세기 양반가의 가족관계와 가부장권 –유희춘의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21, 2002 ; 「16세기 부권과 부권의 존재양식 –『眉巖日記』에 나타난 宋德峯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18권 1호, 2002 ; 「조선중기의 혼수・위요・인척관계 - 柳希春家의 婚姻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5집, 2004.

6) 김경미, 「조선 여성의 또 다른 삶 - 송덕봉 -」, 『여/성이론』, 2002, pp.290~304, 박미해의 위의 논문 참조.

7) 김혜숙, 「조선시대의 권력과 성 - '예치'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한울, 1995 ;
이옥경, 「조선시대 貞節이데올로기의 형성기반과 정착방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김선경, 「조선 후기 여성의 성, 감시와 처벌」, 『역사연구』 제 8호, 역사학연구소, 2000. 등

8) 유교학회, 「유교와 페미니즘, 그 관계맺음의 해석학」, 1995
정옥자 외, 「조선 여성은 억압받았는가?」, 『전통과 현대』 12호, p.105

新築과 토지 및 家産증식 등 한 집안의 경제적 책임을 도맡아 처리하는 적극성을 보인다. 이는 또한 가정내에서 그의 위치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가정생활을 단순히 집안일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정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관리적인 요소로써 '家政'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그 성격을 본문 Ⅱ·Ⅲ의 家庭生活과 家事京營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적극성이 가부장제의 유지 강화에 스스로 일조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해나가는 자발적인 여성의 모습, 나아가 남녀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차별화한 공존의 관계였다는 사실로써 그 해결의 실마리를 밝혀보자.

Ⅱ. 송덕봉 家系와 家政運營의 배경

1. 송덕봉의 家系

宋德峯(1521-1578)은 중종 16년 12월 20일 전라도 담양 太谷에서 태어났다. 洪州 宋氏로 본이름은 알 수 없고, 號는 德峯, 字는 成仲 이다. 그녀는 연산군 때 大司諫・右承旨・羅監司・司憲·禮曹判書 등을 역임한 부친 宋駿(1476-1549)과 어머니 咸安李氏 슬하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다. 그녀의 집안은 호남지역에 근거한 당대에 학문 뿐만아니라 門閥까지 겸비한 명문가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홍주송씨 집안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시조 宋枰은 조선 세조때 造紙署別提와 世子翊衛司翊衛 등을 지내고 향리인 전북 순창으로 돌아가 유유자적하다가 만년에 전남 담양으로 이거하여 여생을 마친 인물이다. 그래서 후손들은 枰을 시조로 받들고 본관을 洪州로 하여 世系를 이어왔다. 枰의 아들은 宋麒孫으로, 그는 司憲府監察을 거쳐 남평과 구례 등지의 수령을 역임한 후 내직으로 들어와 殿中侍御史를 지냈다. 全州李氏와 결혼하여 슬하에 駿, 驌, 駒, 驊라는 네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9] 그의 아들 代에서 크게 3파로 갈려 家勢를 일으켰다.[10]

그 중 청심헌 宋駒(1483-1550)는 사헌부 감찰을 거쳐 임피・화순・구례・김제・동복 등 12개 고을의 수령을 역임하였다. 驅의 아들로는 勿染亭의 주인 宋庭筍(1521-1584)[11]과 宋庭篁(1532-1557)[12]이 있는데, 이 둘은 모두

9) 洪州宋氏 家系圖 본문 p.7 참조.
10) 宋駿(아락당공파)・宋驌(우유당공파)・宋駒(청심헌공파) 등 크게 3파로 갈라져서 가세를 일으켰다.
11) 庭筍의 호는 勿染으로 1558년 文科에 及第하여 사헌부 감찰, 예조정랑, 시강원보덕, 춘추관주서관, 경상도사, 구례・영암・무안 등 여러 군수를 역임하고 말년에는 公州牧使로 除授았으나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12) 庭篁은 1556년 文科에 及第하였는데 兄인 勿染보다 2년 먼저 登科하고 弘文館 正字와 全羅都事를 역임 하였는데 河西 金鱗厚의 門人이다.

현달하였다. 특히, 庭篁의 아들인 宋濟民(1543-1602)[13]은 임진왜란 때 梁山龍 등과 의병을 일으켜 金千鎰의 막하에서 전라도 의병조사관으로 활약하였던 인물로, '斥倭萬言疏'를 올려 왜적을 물리칠 여러 방안을 피력하였으나 뜻을 펼치지 못하여 은거하며 후진양성에 매진하였다. 그는 '經國濟民'을 이루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하였으며, 이에 탄식하여 자신의 이름글자 중에 '濟'를 '齊'로 고쳤다. 현재 그의 사당은 광주 금곡동 운암서원에 위치해 있다.

宋柁(1567-1597)는 濟民의 아들로, 역시 정유재란 때 한산도에서 왜적들에게 포의 당하자 투신하여 자진하였는데, 이들 父子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함께 나서며 드높은 충절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洪州 宋氏는 호남지역에 근거를 둔 사림파 가문이었고, 나아가 한시에 능하였던 宋德峯과 石洲 權韠의 부인을 배출한 집안이었다.

반면에 덕봉의 남편인 柳希春(1513-1577)[14]의 집안은 父親 城隱 柳桂隣(1478-1528)이 崔溥(1454-1504)[15]의 사위가 되어 집안이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다 외조부인 최부와 兄 柳成春(1495-1522)[16]이 士禍에 연루되어 잇달아 화를 당하게 되고, 유희춘 역시 乙巳士禍[17]

---

13) 이종범,「조선중기 洪州 宋氏家 의 교유와 활동」, 2010.

14) 柳希春의 字는 仁仲이고, 號는 眉巖이며 本貫은 善山이다. 1513(中宗 8)년 12월 4일 城隱 柳桂隣의 둘째 아들로 海南에서 태어났다.

15) 崔溥는, 金宗直의 문인으로 1482년 親試文科에 乙科로 급제, 여러 관직을 거쳤다. 金宏弼과 金宗直의 문인으로 戊午士禍와 甲子士禍에 함께 화를 입은 사이였다. 한때 해남에 기거하면서 尹孝貞·林遇利·유계린 등에게 학문은 가르쳤으며 서거정 등과 함께『東國通鑑』편찬에 참여하였고 풍랑을 만나 명나라까지 갔다가 돌아와서『漂海錄』을 저술하였다. 戊午士禍 때 함경도 단천에 유배되었다가 甲子士禍 때 현지에서 斬刑을 당하였다

16) 1514년 문과에 합격하여 이조좌랑 등을 지냈으며, 己卯士禍에 연루되어 금릉으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났으나, 부친이 돌아간 해인 1522년 28세로 요절했다. 崔山斗・尹衢와 함께 '湖南三傑'로 불렸다.

17) 인종이 재위 8개월 만에 승하하였고, 12세의 명종이 즉위하자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다. 유희춘은 당시에 司諫院 正言이였는데 時務十策을 동료들과 작성하여 올리고 8월에 사간이 되었다. 당시 尹元衡은 그의 일당인 李芑・鄭順朋・林百齡・許磁・崔輔漢 등과 계책을 꾀하였고 그의 妾 蘭貞은 문정왕후와 명종을 선동하여 尹任과 그의 일당 柳灌・柳仁淑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문정왕후로 하여금 密旨를 내려 大司憲 閔齊仁과 大司諫 金光準에게 이를 發論하려 하였다. 이에 민제인과 김광준 등은 中學에 회동하여 이를 의논하였지만, 유희춘을 비롯한 宋希奎・朴光祐・鄭希登・李彦忱・金儲・閔起文・白仁傑・金鸞祥 등 모두가 그들의 말에 따르지 않

로 파직되어 향리로 退居 하기에 이른다. 게다가 명종 2년 9월에는 良才驛壁書事件[18]이 일어나 을사년에 파직된 사람들에게 죄가 덧씌워져 제주로 유배되었으나 고향과 가깝다는 이유로 함경도 鍾城으로 유배지가 옮겨졌으며 그곳에서 19년 동안의 유배기간 동안 오직 후진들의 교육과 저술에 매진하였다. 때문에 그는 젊어서 재산을 확대하지는 못하였고, 기나긴 유배기간동안 妻家에 의탁하며 친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생활하다가 선조가 즉위하자 재등용 되어 점차 생활이 나아지게 되었다.[19]

이러한 善山柳氏의 가계를 살펴보면, 五代祖까지는 고관을 지냈으나 高祖 이하 曾祖・祖父・父親에 이르기까지는 벼슬하지 못하였다.[20] 그러다 유희춘이 전라감사에 임명되면서 曾祖 柳陽秀(1405-1482)는 通訓大夫通禮院左通禮, 祖父 柳公濬(1448-1500)은 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에, 父親 柳桂鄰은 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에 追贈되었다.[21] 가계도를 통해 洪州宋氏家와 善山

고 오히려 밀지를 부당하다고 규탄하여 결국은 이를 論啓하지 않았다. 이 일로 인하여 윤원형은 크게 노하여 이기・정순붕・임백령・허자 등을 대궐로 들여보내 윤임 등 2인의 죄를 아뢰게 하였으며 이들에게 반역의 죄를 씌워 귀양을 보낸 후 모두 죽였다. 이로 인해 송희규 이하 대간은 모두 파직되었다.

18) 良才驛壁書事件은 乙巳士禍의 2년 뒤에 일어난 것으로 윤원형 세력이 윤임파의 잔당과 士林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정치 쟁점화 했던 정적 숙청사건이다. 정미년(1547) 9월 18일에 副提學 정언각이 선전관 李櫓와 함께 양재역 壁書를 아뢰었다. 그 글은 붉은 글씨로, "女主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 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간하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은 서서 기다릴 수 있을 정도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으리오." 하였는데, 이기・정순붕・윤원형・임백령 등이 드디어 그 글을 봉해서 올렸다. 李岏・宋仁壽・李若氷에게는 사약을 내리고, 李彦迪・鄭滋는 먼 변방에 안치되고, 柳希春・盧守愼・丁熿・金鸞祥은 絶島에 안치되고, 權應挺・權應昌・鄭惟沈・李天啓・權勿・李湛・林亨秀・韓澍・安景祐 등은 먼 지방에 付處되고, 宋希奎・白仁傑・李彦沈・閔起文・黃博・李震・李世男・金振宗・尹剛元・趙璞・世亨・尹忠元・安瑲 등은 付處되었다. (『대동야승』 券12, 「乙巳傳聞錄」, 「鄭彦慤上變」 참조)

19) 이성임, 「16세기 조선 양반관료의 사환과 그에 따른 수입 -유희춘의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145, 1995.

20) 『眉巖日記草』 券3, 癸酉 1월 1일, "有人曰 文起四代衰 蓋希春玄祖書雲正諱澥以上 高官大爵 自高祖甘浦萬戶諱文浩以下 四世不顯 至于先考 敎誨二子 兄及希春 相繼文科 希春又位至宰相 光生九族 實一家之中興也."

21) 『眉巖日記草』 券3, 癸酉 3월 5일, "早朝 吏曹書吏柳熙祥 持昨日政下批追贈三世官誥來 希春具冠帶出迎 受而向闕伏地 入而展讀 則先考贈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祖贈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 曾祖贈通訓大夫通禮院左通禮."

柳氏家의 내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洪州宋氏 家系圖[22]

```
福龍-桂-枰-麒孫 ─┬ 駿(1476-1549) ┬ 庭老 ----┬ 溫達
                 |=咸安李氏       |          └ 女=李衡
                 | (仁亨 女)      ├ 庭彦 ----┬ 震 ----- 承慶 --- 文吉
                 |                |=玉川趙氏  |=海南尹氏
                 |                |          └ 女=安敬德
                 |                ├ 庭秀 ----┬ 女=李邦柱 ---┬ 李壽慶
                 |                |=順興安氏  |              └ 李壽昌
                 |                |          ├ 女=曺景中
                 |                |          └ 德山
                 |                ├ 女=邊守禎 ------ 邊澗
                 |                └ 女(德峯)=柳希春 ---┬ 柳景濂 --┬ 柳光先
                 |                        (1513-1577) |=蔚山金氏 ├ 柳光延
                 |                                    |          └ 女=安景鸞
                 |                                    └ 女=尹寬中 - 女=白振南
                 ├ 驌---------┬ 庭筠 -----┬ 連=玄風郭氏
                 |=慶州崔氏    |=泰仁景氏   ├ 遵=金海金氏
                 |             |          └ 建=羅州陳氏
                 |             ├ 庭栢 ------ 女=李維 ------- 李元龍
                 |             └ 庭檜 ------ 近 ---- 受益 -- 斗文
                 |
                 ├ 駒 --------┬ 安道 -----┬ 興=全義李氏
                 |=竹山安氏    |=新平宋氏   └ 女=吳奉宗
                 |=礪山宋氏    |
                 |             ├ 庭筍 ------ 女=羅德用
                 |             |=羅州鄭氏,
                 |             |=咸陽吳氏
                 |             ├ 庭篁 ------ 濟民(1543-1602) --- 柁
                 |             |            =忠州朴氏, =蔚山金氏
                 |             ├ 女=朴世彦 ----- 朴兆齡
                 |             └ 女=崔穎 ------- 崔尙重
                 |
                 ├ 驊 --------- 庭芝
                 ├ 女=申洎 ----- 申永源
                 └ 女=李擇 ----┬ 李元凱
                               ├ 李亨凱
                               └ 女=吳鯨
```

22)『洪州宋氏世譜』

<표 2> 善山柳氏 家系圖[23]

```
 文浩 ------- 陽秀(1405-1482) ----- 公濬(1448-1500) ----------┐
 =利川徐氏     =南原梁氏                  =淳昌薛氏                    |
┌──────────────────────────────────────────────────────────┘
├ 桂隣 -----┬ 成春(1495-1522) - 沿漑 -------------┬ 光雲
|=耽津崔氏  |=光州金氏                              ├ 光雯
|(溥 女)    |                                       └ 光龍
|           ├ 希春(1513-1577) -┬ 景濂(1529-1603) --┬ 光先(繼文) =扶安金氏
|           |=洪州宋氏         |=蔚山金氏           ├ 光延(興文)
|           |                  |                    └ 女=安景鸞
|           |                  ├ 女=尹寬中 ------- 女=白振南
|           |                  ├ 庶女 海成=鄭鴻, =吳沄
|           |                  ├ 庶女 海福=金宗麗
|           |                  ├ 庶女 海明=張以昌
|           |                  └ 庶女 海歸=李潑
|           ├ 女=李惟秀 ----- 李惟秀
|           ├ 女=吳千齡 ----- 吳彦祥
|           └ 女=韓士訥 ----- 韓孝淸
└ 桂近 ------ 榮春
```

이 두 집안의 혼사를 주선한 사람이 홍주송씨와 같이 廬山宋氏에서 분파한 新平宋氏, 俛仰亭 宋純이라고도 하고, 勿染亭을 무대로 유희춘에게 자신의 학문을 전수하였던 스승 新齋 崔山斗(1483-1536)[24] 라고도 한다.[25] 이에 대해서는, 당시 최산두가 김종직과 김굉필의 문인인 점, 같은 문인인 유계린이 유희춘을 최산두에게 보내어 공부하게 한 점, 그리고 유성춘이 당대의 湖南

23) 『善山柳氏世譜』

24) 崔山斗의 字는 景仰, 號는 新齋이다. 그는 18세에 김종직과 김굉필의 학문을 근본으로 삼아 익혔다. 19세 때 상경 한 후 도학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학문적으로 깊게 사귀었던 인물들로 조광조와 韓忠, 金絿, 金淨, 金安國, 金正國, 金湜, 朴世憙 등 인데 이들은 주로 사림파의 인물들이었다. 당시 이들을 일컬어 '洛中君子會'라 칭하였다. 또한 김굉필과의 학연으로 인하여 성리학과 『小學』을 바탕으로 학문적 체계를 바로 세웠다.

25) 이종범, 「조선중기 洪州 宋氏家 의 교유와 활동」, 2010

三傑로 최산두와 가깝게 지내게 된 점 등을 통해 정황상, 최산두의 영향으로 맺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한편 이상의 가계도를 통해서 당시 호남사림의 인맥확대에 妻家와의 혼인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송덕봉과 유희춘의 집안뿐만 아니라 당시 호남 사림의 전형적인 혼인양상으로 보인다. 당시 유희춘과 동문수학한 친구이자 사돈이었던[26] 河西 金麟厚(1510-1560)의 집안을 보면, 그는 梁山甫의 아들 梁子徵을 사위로 삼고, 李恒의 딸을 며느리, 奇大升의 딸을 孫婦로 삼았다. 이밖에도 이항, 양산보, 기대승 등 당시의 호남에 사림의 명사들이 척분으로 얽힌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眉巖은 해남에서 태어나 담양으로 장가들어 본가와 처가를 수시로 왕래하며 생활하였다. 자연히 혼인 후 그의 생활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宋德峯은 담양에서 태어나 자랐고, 혼인한 뒤에도 계속 그곳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았으며, 부모가 돌아가신 뒤로는 그 집과 田畓을 물려받아 조상의 제사를 지내면서 살았다.

그들의 아들인 景濂도 인근의 장성으로 장가가서 살았으며, 그의 아내는 가끔씩 시댁에 인사하러 오기도 했으나 친정어머니가 부르면 곧장 돌아갔다. 당연히 그 자녀들은 모두 외가에서 태어났고, 또 그곳에서 주로 살았다. 딸부부도 마찬가지였는데, 딸은 혼인 후 계속 부모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서로의 정의가 각별하였을 뿐아니라, 덕봉은 어디를 가든지 항

26) 柳希春竄北 就別曰 君遠謫 妻子無所依君之弱子 吾當取而爲婿 無念焉 柳自景濂不才 且 年歲與其女不稱而竟取之.(『大東野乘』,「東閣雜記」 下) ; 金河西未第時 在泮宮病癘將革 人不敢顧見 柳眉庵希春爲館官 惜其人 舁置其寓 晝夜救視。卒得更起 河西感之 及眉庵竄鍾城 有一子駃甚 河西將贅之 一家共以爲不可 不聽而卒諧其姻 人兩多之.(許筠,『惺所覆瓿藁』23,「惺翁識小錄」) ; 그들이 사돈을 맺게된다는 다음의 일화가 전해온다. 김인후가 시마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서 있을 적에 전염병으로 위독하여 주위 사람들이 돌보지 못하였는데 성균관 관원으로 있었던 유희춘이 그를 자신의 집에서 정성으로 간호하여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 사이가 더욱 절실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훗날 유희춘이 명종 2년(1547) 함경도 종성으로 귀양 갈 때 남겨진 식솔을 걱정하자 김인후는 유희춘의 아들 柳景濂을 자기 문하에서 학문을 닦도록 하고 그를 사위로 삼았으며 그들의 이러한 돈독한 우정은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膾炙되었다.

상 딸을 데리고 다녔다. 반면에 사위 윤관중은 海南 尹氏家의 외아들이었음에도 담양으로 장가와서 틈나는 대로 본가에 근친을 다니곤 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가족관계에서는 아들과 딸을 따지지 않았고, 친족관계에서도 本孫과 外孫을 따로 구별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宋氏 집안은 대대로 부유하고 門閥까지 있는 유력가문이었기 때문에 善山柳氏・海南尹氏・咸安李氏・黃州邊氏・錦城羅氏・昌寧曺氏・光山金氏 등 과 婚脈을 통해 家系를 잇고 家統과 家格을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향촌사회에서 그 기반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2. 유희춘의 미암일기와 庭訓

일기는 인간의 삶의 모습들을 일정 기간 동안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자가 만들어진 이후로 인간 생활과 함께 밀접하게 있어 왔다고 여겨진다. 또한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일기는 사실적인 기록과 개인의 주관을 담은 것이다. 유희춘은 은진으로 해배된 1567년 10월 1일부터 그가 죽기 이틀 전인 1577년 5월 13일까지 무려 11년 동안 서울과 고향을 오가며 겪은 경험담을 직접 기록한 『眉巖日記』를 남겼다.

개인일기로는 가장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며, 당시 양반들의 관직생활과 살림살이에서 부터 부부갈등까지 상세히 기록되어있다. 또한 그는 조정의 핵심 관직에 있으면서 國事를 논의한 사실까지 사실적으로 기록해놓았기 때문에『宣祖實錄』을 撰修하는 데에도 중대한 사료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27] 특히 미시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미암일기』는 수많은 통로를

27) 임진왜란 때 史草가 소진됨에 따라 光海君 元年(1609)에 『宣祖實錄』을 撰修하게 되자, 각 개인의 일기나 문집 또는 남아있는 객사등록·소초 등을 수집하여 편찬하게 되었다. 이 때 이이의 『石潭日記』・기대승의 『論思錄』등과 함께 『眉巖日記』가 선조 초부터 11년간의 사료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 그 중에서도『眉巖日記』는『宣祖實錄』을 대비하여 양서에 같은 기사가 수록된 일자를 조사해본 결과, 1567.10.9.- 1576.7.25.까지 총 861日分의 기사가 참고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998, 송재용,「『眉巖日記』의 書誌와 史料的 價値)

열어주는, 흥미로울 대상일 것이다. 그가 쓴 방대한 일기는 그 험난한 시절을 살아온 지식인의 내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일상의 정보까지 알차게 담겨 있어, 오늘날 당시 사회상을 이해하는데 더없이 소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듯 『眉巖日記』는 16세기 사회상을 풍부하게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기적 단계에서 보였던 宋德峯의 적극적 생활상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가치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유희춘이 일기를 저술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유희춘의 부친 유계린, 형 유성춘이 일기를 작성하였음을 『미암일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일전에 아버지의 일기를 살펴보니 신사년의 여름 記事에 하였기를, "희손이란 놈이 『통감』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루 배운 것이 겨우 2장뿐 이지만 이따금 제 뜻으로 고금의 인물을 논평하는데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하여 기쁘다."고 하였다.[28]

> 책을 옮기다 엎드려 돌아가신 아버지의 일기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년시절 사실을 적은 글을 보았다. 비감했다. 두 어른의 총명하심은 모두 제일이었다.[29]

喜孫은 유희춘의 兒名[30]으로 자신이 어린 시절 『통감』을 배우기 시작하여 하루의 학습하는 분량은 비록 적었지만 특히 『통감』을 배울 때, 국가난망의 대목에 이르러서는 탄식을 하며 눈물을 흘리니 부친이 기특하게 여겼다.[31] 바로 이러한 역사에 대한 인식은 나중에 그가 『미암일기』를 통하여 역사를

---

28) 『眉巖日記草』 卷3, 辛未 5월 22일, "頃閱先君子日記 辛巳年夏云 喜孫者始讀通鑑 一日之受 僅只二張 然時以其意 論古今人物 出人意表 …中略… 不勝感激.".

29) 『眉巖日記草』 卷5, 乙亥 12월 11일, "遷移中堂書冊一半于大房 因遷冊 伏覩先君子日記先夫人幼年事實 爲之悲感 蓋兩家尊聰明 俱第一."

30) 宋宰鏞, 「眉巖 柳希春의 生涯와 學問」, 『퇴계학연구』 10, 단국대부설퇴계학연구소, 1996, p.214.

31) 『眉巖先生集』 「謚狀」 "參判公親授以通鑑 公時以其意論往事 多出人意表 至於國家亂亡之故 輒掩卷太息 或繼之以流涕 參判公奇愛之."

기술하고 진술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유희춘은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 부친이 남긴 일기를 보게 되는데 부친에 대한 그리움으로 슬퍼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기술한 일기 내용으로 보면 부친이 일기를 작성했다는 점은 짐작할 수 있지만 언제부터 일기를 작성했고 몇 권의 일기를 작성했는지는 남아있는 일기가 없어 알 수는 없다.

외조부 최부 역시 『漂海錄』을 작성했던 점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최부는 1487년 9월 推刷敬差官으로 임명되어 제주도에 갔다가 부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고향인 나주로 가기 위해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 14일 동안 표류한 끝에 중국에 도착한다. 항주, 북경 등을 거쳐 5개월여 만에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최부가 한양에 당도한 직후 성종의 명에 의해 표류의 전말을 기록한 것이 바로 『표해록』이다.[32]

『표해록』은 5개월여의 경험이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체[33]로 기록되어 있어 여행의 전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유희춘은 외조부를 위하여 선조 1년(1568) 8월 「漂海錄跋」을 지어 외조부의 표류사실과 표해록 印出과정을 밝히기도 하였다. 유희춘도 부친과 형 그리고 외조부 역시 일기를 작성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유희춘의 친가와 외가 모두 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유희춘의 저술 가운데 家政運營과 관련하여 하나 주목되는 것은, 바로 「庭訓」이다. 유희춘은 부친의 언행과 가르침을 정리하여 「정훈」으로 완성하였다. 유계린은 스승의 『가범』가운데 『居家儀』를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居家篤行十條』를 유희춘에게 남겼는데, 그 대개가 김굉필로부터 이어 받은 도학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

32) 金美善, 「崔溥 『漂海錄』의 기행문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16.

33) 일기는 일력의 순서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쓴다는 기본 조건에서 출발한다. 그 명칭을 보면 실로 다양하다. 예를 들면 日記, 錄, 記事, 記聞, 史草도 일기의 형식인데 원칙적으로 날짜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기록한 모든 기록은 명칭에 관계없이 일기이다.

「정훈」은 『眉巖集』에 4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十訓」을 비롯하여 「庭訓內篇」과 「庭訓外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庭訓內篇」은 尊卑長幼・待人禮人・養生治生・讀書解文・大小行事 등 집안에서 지켜야 할 예절 5조목을 적었고, 「庭訓外篇」은 상・하로 나눠 조정에서 벼슬할 때 알아야 할 예절, 즉 몸가짐・일처리・교유 등 8조목과, 지방관으로 나갔을 대 알아야 할 일 8조목을 실었다.[34] 이와 같이 유희춘이 「十訓」으로 정리한 아버지의 가훈은 매우 구체적이었으며 일상의 과제를 하나하나 제시하였다.[35]

이렇듯 당시의 조선조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시기 위해 四禮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름의 敎化書를 만들어 점차 변해가는 향촌질서를 안정시키려고 하였다.[36] 이때 선비의 인격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규범을 학문적 연마에 앞서 도덕적 실천이라고 보고, 자기완성을 위한 기본방법과 성격을 『走者家禮』와 『小學』의 실천규범에서 찾으려 노력하였다.

특히 사림의 영수라 불리는 金宏弼(1454-1504)[37]이 『소학』에 관심을 기울인 이후, 그의 학문과 사상은 김굉필과 崔溥(1454-1504)에게로 계승되었다. 특히 김굉필은 자신을 '小學童子'라 일컬을 정도로 『소학』을 존중하였다.[38] 이러한 김굉필과 최부의 제자였던 유희춘의 아버지인 城隱 柳桂麟(1478-1528)은 저술이나 사상적인 측면에서 확인할 자료가 많지 않으나, 丈

34) 「庭訓外篇」上에는 律身行己・勤職處事・睦僚敬貴・擇交語人・絶謁應請・禮儀·避爭・求書求益 等 8項目, 「庭訓外篇」下에는 律身・御吏・牧民聽治・求言用人・治姦勸善・謁聖興孝・待士接賓・立朝治縣・通訓 등이 수록되었다.

35) 고영진, 「유희춘-선조대 성리학 연구와 학술 진흥에 기여한 호남 사림」, 『한국사 인물열전』 2, 2003 ; 이종범, 『사림열전1 : 소쇄원의 바람소리』, 아침이슬, 2006. pp.144-172.

36) 고영진, 「15・16世紀 朱子家禮의 施行과 그 意義」, 『한국사론』 21, 1989 ; 16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家禮書로는, 金麟厚의「家禮考誤」 李彦迪의 『奉先雜儀』 李滉의 『退溪喪祭禮答問』 李珥의 『祭儀抄』, 『擊蒙要訣』 中 喪制・祭禮, 李賢輔의 「祭禮」등이 대표적이다.

37) 金宏弼은, 본관이 瑞興, 자는 大猷, 호는 蓑翁·寒暄堂이며, 시호는 文敬이다. 김종직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우면서 특히 『小學』에 심취하여 스스로 '小學童子'라 칭하였다. 학문경향은 鄭夢周·吉再로 이어지는 義理之學을 계승하였으며, 治人 보다는 修己에 중점을 두었다. 1610년(광해군 2) 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 등과 함께 5현으로 文廟에 배향됨으로써 조선 성리학의 정통을 계승한 인물로 인정받았다.

38) 이종범, 『사림열전2 : 순례자의 노래』, 아침이슬, 2008, p.360, p.370.

人 최부와 김굉필의 문하에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 수학한 바, 성리학에 상당한 조예를 갖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계린은 순천에서 생장하여 孟權과 함께 김굉필에게 글을 배웠고, 최부의 사위가 된 후부터 주로 妻鄕인 해남에 거주하면서 수학하였다. 그러다 최부가 戊午士禍를 당하여 함경도 단천에 유배된 뒤, 김굉필이 순천에 이배되어 오자 다시 순천으로 돌아와 김굉필을 모시면서 그 제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굉필과 최부는 김종직 문하의 동문으로서 무오년에 화를 입었고 훗날 갑자사화 때 유배지에서 같이 사사되었다는 점에서, 유계린은 김굉필을 스승 겸 聘父로 따랐을 것이다. 39)

결과적으로 유계린은 김종직과 김굉필로부터 이어받은 조선 유학의 정신을 유희춘에게 전수하여 호남에 뿌리내리게 하였다. 당시 유계린도 두 스승과 마찬가지로 성리학적 실천규범을 내용으로 학문적인 면과 더불어 修身齊家의 생활윤리를 강조하였고, 유희춘 역시 무엇보다 학문의 기초를 중시하였고 인간의 교화에 있어서 『소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柳希春家의 가정생활은 기본적으로 아버지 柳桂鄰의 가르침이 담긴 「庭訓」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유희춘의 딸이 『內訓』을 받아들고, "삼가 은우에게 잘 전하겠다."40)라는 대목을 통해서 여성의 婦德과 凡節의 교육이 家學을 통해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孫女 은우에 대한 기록을 통해 이 『內訓』이 전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8세의 은우가 해성의 喪夫한 일을 두고 "사람의 남편은 하나이다. 이미 혼인했으니 어찌 두 남 편의 이치가 있겠느냐,"하니 그 말이 늠름하다. 참으로 기특한 女요, 門戶를 빛낼 者다.41)

---

39) 조원래, 「士禍期 호남사림의 學脈과 김굉필의 도학사상」, 『동양학』 제25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5.

40) 『眉巖日記草』 券3, 癸酉 3월 6일, "唱准金世傑, 持紙價內訓四冊來, 粧潢可愛, 卽予女子, 女子大喜, 卽稱謹當寶玩, 傳之恩遇云."

유희춘의 어린 손녀의 孝誠, 上下尊卑, 不更二夫를 대견해 하는 것에서 女兒들이 어려서부터 유교적 도덕을 장려 받고 자랐음을 알 수 있다.

> 하루는 恩遇가 그 어미로부터 작은 버들고리를 잃어버렸다고 야단을 맞았는데 꾸중을 들으면서도 웃고 태연히 화를 내지 않고 평시처럼 밥을 먹자 옆 사람이 "어찌 슬퍼하고 울지 않느냐"고 물자 대답하기를 "내가 물건을 잃어버려서 죄가 있으니 꾸중을 듣는 것은 당연한데 무슨 한이 있겠느냐."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 도량과 지식이 남보다 훨씬 원대하다. 나는 기뻐서 과일을 상으로 줬다.[42]

이러한 女兒의 유교화 과정을 통해 유교식의 사회화가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家學은 체계적·공식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無知로 인해 스스로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과 집안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지식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듯 이 시기에는 여성들을 위한 공식적인 교육기관이 없었다. 하지만 그에 필적할만한 가정에서의 교육, 곧 家學이 엄연히 존재하였다.

宋德峯 역시 士林인 아버지 宋駿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家學을 통해 사림의 분위기를 익혔고, 그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유희춘과 결혼 후에는 그 집안의 유교적 덕목을 따르면서 家政運營을 통해 본보기를 보였다. 그 내용은 대체로 삼강오륜의 훈계·자녀교육 내용·건강관리·대인관계·재산관리·관혼상제 등에 관한 것들로 나눌 수 있다.[43] 간혹 여력이 있는 양반가에서 혼인 전의 여성에게 더 높은 학문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교육하기도 했다. 洪州

---

41)『眉巖日記草』 券4, 甲戌 5월 12일, "'爲恩遇, 賦小詩', 八歲孫女恩遇言曰, 一家之生活. 專由於上之給祿, 願主上壽千年, 其忠誠篤厚, 非髫齔兒所能爲也, 恩遇又言及海成喪夫事曰, 人之夫一也, 旣爲婚姻, 豈有二夫之理, 其言亦凛, 信乎奇異之女, 光耀門戶孝也."

42)『眉巖日記草』 券4, 甲戌 3월 16일,

43)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2, 역사비평사, 2000(이소은, 「사대부의 가정생활」).

宋氏家도 어렸을 때부터 여성에게 「경서」와 「사서」등의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녀와 함께 石洲 權韠의 부인이라는 걸출한 여류문인을 배출한 것에서 그 가문배경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녀는 남편과 학문적 교감은 물론 해남과 담양의 가솔들을 챙기고 재산관리 및 증식하는데 능력을 발휘하였다. 늘 올바른 몸가짐과 儀節을 지키려 힘썼고 빼어난 학식을 갖췄으며, 누구보다 여성의 본분에 충실, 아내·며느리·어머니로서 본보기를 보였다. 이렇듯 宋德峯은 家學을 기초로 여성의 덕목을 키웠고, 出家 후에는 柳門의 가정규범서 「庭訓」을 바탕으로 진정한 안주인으로써 한 가문을 이끌어 나갔다. 나아가 자신의 도리를 다한 만큼 남편도 지아비와 사위로서 도리를 다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에서 엄격히 內外하는 경직된 양반가 부부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때 사대부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도록 유도했던 기제 역시 유교적 경전을 통한 교육에 있었다. 당시 여성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성리학적 이념의 틀 안에 재정립하기 위한 덕목들이 따로 강조되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성 자신들도 교육서를 통해 유교에서 제시된 예절과 가내 역할을 내면화하여 유교에서 강조하는 이상형으로서의 여성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결국 김굉필의 가르침이 柳桂隣과 崔山斗를 거쳐 柳成春, 柳希春에게 이어졌고, 家長의 주도하에 가정구성원 모두의 생활지침서로 자리 잡았다. 가정에서 출발한 성리학적 윤리의식은 결국에는 사회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후 전체적인 사회구조의 변동을 초래 하였다.

Ⅲ. 宋德峯의 家庭生活

가족 내의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여성이 부담하고 참여하는 역할은 매우 컸다. 자손을 교육하고 族人을 단결시켜 안정을 보증하고, 가족들이 모여 사는 데 있어서 가족을 유지하고 쇠퇴시키지 않기 위해 그들을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였다. 때문에 이번 장을 통해서는 송덕봉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각 가족구성원들의 정신적 지주로써 송덕봉의 역할과 위상을 파악해 보자.

1. 同僚的 夫妻관계

宋德峯의 남편 柳希春은 수학, 유배, 관직생활을 이유로 자주 집을 떠나 생활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실질적인 집안의 가장으로써 안팎으로 살림살이를 주관하였다. 남편의 뒷바라지는 물론 홀로 어린 자식을 키우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등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도 좌절하거나 법도에 어긋나는 법이 없었다. 宋德峯의 이러한 행적들과 성리학에 관한 지식은 이 후 유희춘과의 관계에서 그녀가 주도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答文節公書」에서는 은근히 첩을 들일 의사를 비치는 眉巖에게 본인의 과거행적에 대한 의미부여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며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 나도 또한 당신에게 잊지 못할 공이 있소. 가볍게 여기지 마시구려. 당신은 몇 달 동안 독숙을 하고서 붓끝의 글자마다 공을 자랑했지만, 나이가 60이 가까우니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크게 이로운 것이지 결코 내게 갚기 어려운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오. 하기사 당신은 귀한 관직에 있어서 도성의 만인이 우러러보는 처지이니 비록 수개월 동안의 독숙도 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오.
>
> 나는 옛날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사방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당신은 만리

밖에 있어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며 슬퍼하기만 했소. 그래도 나는 지성으로 예에 따라 장례를 치루면서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했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묘를 쓰고 제사를 지냄이 비록 친자식이라도 이보다 더할 순 없다."라고 하였소. 삼년상을 마치고 또 만리의 길을 나서서 멀리 험난한 길을 갔는데 이것을 누가 모르겠소. 내가 당신한테 한 이런 지성스런 일이 바로 잊기 어려운 일이오. 당신이 몇 달 동안 동숙한 공을 내가 한 몇 가지 일과 서로 비교하면 어느 것이 가볍고 어느 것이 무겁겠소.

원컨대 당신은 영원히 잡념을 끊고 기운을 보양하여 수명을 늘이도록 하시오. 이것이 내가 밤낮으로 바라는 바이오. 나의 뜻을 이해하고 깊이 살피기를 엎드려 바라오. 송씨 아룀.

「答文節公書」[44]

1570년 眉巖은 홍문관 부제학에 제수돼 서울로 올라와 관직생활을 하던 중 德峯에게 편지를 보낸다. 3~4개월 동안 홀로 자면서 일체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당신은 갚기 어려운 은혜를 입은 줄 알라고 자랑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德峯은 위와 같은 답장의 편지를 보내 眉巖을 매섭게 질책한다. 眉巖은 부인의 말과 뜻이 다 좋아 탄복을 금할 수 없다며[45]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송덕봉은 詩로써 유희춘과 수창하는 문학적인 교감을 통해 부부간의 친밀감뿐만 아니라 知己라는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깊은 유대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眉巖의 평생 행적을 기록한 글(諡狀)에 따르면, 德峯은 천성이 명민하고 經書와 四書를 두루 섭렵해서 女士로서의 풍모가 있었다고 한다.[46]

실제로 그녀는 평생 동안 시와 문, 편지 등을 써서 『德峯集』이란 시문집

44) 『眉巖日記草』 券2, 庚午 6월 12일, "亦有不忘之功, 毋忽焉, 公則數月獨宿, 每書筆端, 字字誇功, 但六十將近, 若如是獨處, 於君保氣, 大有利也, 非妾難報之恩也, 雖然君居貴職, 都城萬人頃仰之時, 雖數月獨處 此亦人之所難也, 荊妻昔於慈堂之喪, 四無顧念之人, 君在萬里. 號天慟悼而已, 至禮誠葬, 無愧於人, 傍人或云, 成墳祭禮, 雖親子無以過, 三年喪, 又登萬里之路問關涉險, 孰不知之, 吾向君如是至誠之事, 此之謂難忘之事也, 公爲數月獨宿之功, 如我數事相肩, 則孰輕孰重, 願公永絶雜念, 保氣延年, 此吾日夜顒望者也, 然意伏惟怒如察, 宋氏."

45) 『眉巖日記草』 券2, 庚午 6월 12일, "夫人詞意俱好, 不勝嘆伏."

46) 허성, 「묘갈명」, 『악록선생문집』 57책, 서울, 경인문화사, 1999.

을 남겼는데 유희춘이 처조카 宋震을 시켜 詩 38首를 貼冊으로 만든 것이다.[47] 다음은 덕봉과 미암 주고받은 시를 통해 이들 부부사이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짐작해보고자 한다.

雪下風增冷　눈 내리고 바람 더욱 차가우니
思君坐冷房　냉방에 앉아있는 임이 절로 생각나오
此醪雖品下　이 술이 비록 下品이긴 하지만
亦足煖寒腸　당신의 언 속을 덥히기엔 충분하리다.[48]

眉巖의 詩를 받아 본 宋德峯은, 다음 날 술을 보내준 남편에게 고마움을 시로써 표현하는 한편, 또 다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菊葉雖飛雪　국화잎에 비록 눈발이 날리지만
銀臺有煖房　당신은 은대(승문원)의 따뜻한 방에 있겠지요.
寒堂溫酒受　차가운 방에서 따뜻한 술을 받으니
多謝感充腸.　속을 채울 수 있어 매우 고맙소.

「無題」[49]

위의 시는 眉巖이 승지로 있으면서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하자 집에 있는 송덕봉에게 母酒 한 동이와 함께 시 한 수를 지어 보낸다. 덕봉은 객지에서 관직 생활하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올라왔건만 홀로 차가운 방에서 며칠 동안 남편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때문에 남편의 마음이 담긴 母酒와 시가 반갑기도 했겠지만, 한편 그동안 편하지만은 않았던 본인의 처지를 미암에게 은근히 들춰내고 있다. 이러한 고도의 행동전략을 통해 여인의 도리를 다하는 동시에 부부생활에서 보다 주도적인 입지를 확보하였다고 보여 진다.

---

47) 『眉巖日記草』 券3, 辛未 4월 11일, "宋震所寫夫人詩, 深以爲喜, 尤以詩傳不朽."
48) 『眉巖日記草』 券2, 己巳 9월 1일 수록.
49) 1569년 9월 미암에게 보낸 화답시, 이 해 9월 1일 미암이 승문원에서 숙직하며 임금이 하사한 술상과 함께 아래와 같은 시를 지어 보낸다.

이밖에도 그녀가 먼 길을 다녀오면 항상 10리 밖까지 마중을 나갔으며, 그녀가 몸이 아플 때는 며칠 간 휴가를 내어 간호하는 등의 면모를 보여준다. 또한 덕봉은 시어머니 삼년상을 마치고 남편이 있는 유배지 종성으로 향하던 도중에 찬바람을 맞아 병이 생기게 되었다. 이 후, 10여 년 동한 風汗으로 고생하였는데,[50] 그럼에도 그녀는 교육과 저술, 그리고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한편, 틈틈이 성리학 공부와 詩作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德峯 부부의 금슬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박계현이 사위를 맞을 때 촛불을 켜는 것을 유희춘에게 부탁하였는데 첩이 있다고 거절하자 그런 첩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며 부부의 금슬 좋기가 비할 데가 없으니 사양치 말라고 하자 유희춘은 마지못해 촛불을 켠다.

> 신부집 대사헌의 父子가 촛불을 켤 사람을 논의하다가 유동지만한 이가 없다여겨 나더러 촛불을 켜 달라고 하였다. 나는 첩이 있다고 사양을 했더니 朴啓賢이 말하기를 "그런 첩은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며 "영공의 부부간 금슬좋기가 비할 데가 없으니 사양치 마시오." 하므로 나는 따랐다. 전일 盧克愼의 집에서 켠 것과 합하여 두 번째 촛불을 켰다.[51]

이 당시 촛불을 켜는 것(燃燭)은 신혼부부를 축복하는 것으로 아마도 기혼부부 중에서 금슬이 특히 좋은 사람을 골라서 했던 듯하다. 眉巖에게 燃燭을 부탁한 것을 통해 당시 德峯 부부의 금슬은 주변의 친구나 친지, 동료들도 모두 알고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52]

---

50) 『眉巖日記草』 券3, 癸酉 11월 18일, "晴, 夫人自庚申年赴鍾城, 受風腠理, 冷汗如流, 自辛未年七月, 始服稀簽丸, 服之二年風汗稍減, 至第三年, 今秋快差, 自丁卯年, 針灸臍下 而不灸臍上之後, 脾胃痞滿不思飮食, 尤不能啜羹, 自今年九月聖日, 始服平胃元, 徑二十日, 漸覺脾胃平而思食, 此二病皆瘳於今年, 何慶如之."

51) 『眉巖日記草』 券5, 丙子 10월 9일, "婦家大憲父子共議燃燭之人, 以 爲無若柳同知, 請余燃燭 余辭以有妾, 啓賢曰, 其妾縱有如無比, 宜勿辭, 余從之, 通前日盧克愼家, 爲再燃燭矣."

52) 「16세기 夫權과 婦權의 존재양식 : 眉巖日記에 나타난 유희춘과 송德峯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렇듯 유희춘은 부인에게서 학문과 문학적 자문을 구하기도 했고 詩를 지을 때도 도움을 구하는 것에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 『미암일기』 중에 유희춘이 선친의 先戒를 기술하여 시 한 구를 지었더니, 부인이 유희춘에게 "시를 짓는 법이 直說을 하여 문장을 짓듯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산에 오르고 바다를 건너고 하는 식으로 起를 하여 끝에 가서 벼슬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德峯의 이러한 조언을 유희춘은 흔쾌히 받아들여 다시 시를 지었다.[53] 이들 부부는 시로써 수창하며 서로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作詩의 태도를 논했으며, 삶의 자세 등에 대하여 교감을 나누었다. 이는 서로의 문학적 능력을 인정하며 소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통해 이들 부부가 詩友로서의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여준다.

宋德峯은 당시 여성의 문학 활동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처럼 성리학 연구와 作詩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과의 학문적·문학적 교감 때문인 듯하다. 그의 詩는 남편과 함께 수창한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일들을 꾸밈없이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시에 담아내고 있다. 「磨天嶺上吟」이란 시는 당시 그녀의 내면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는 대표적인 시이다.

行行遂至磨天嶺	가고 또 가서 드디어 마천령에 이르니
東海無涯鏡面平	동해는 끝이 없고 거울처럼 평평하네.
萬里婦人何事到	만리의 길을 부인은 무슨 일로 왔는가
三從義重一身輕	三從의 의리는 무겁고 一身은 가볍다네.

「磨天嶺上吟」[54]

한국여성학』 제18권 1호, 한국여성사학회, 2002.

53) 『眉巖日記草』 券5, 丙子 11월 11일, "希春述先戒, 作詩一句云, 夫人謂余曰, 詩之法, 不宜直說若行文, 然只當起登山渡海, 而說仕宦於其終可也, 余卽矍然從之, 遂作詩云云."

54) 『眉巖日記草』 券5 수록.

그녀가 38세 되는 해1558년 2월 11일, 宋德峯은 媤母喪을 당한다. 더구나 眉巖은 유배생활을 하는 죄인의 몸인지라 올 수도 없는 처지였다. 남편은 萬里 밖 유배지에 있고, 사방에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禮에 따라 葬禮를 치루는 한편 남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였다. 그래서 주위사람들은 그녀의 지극한 효심과 예법에 따른 장례절차를 보고, '친아들이라도 이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여 칭송하였다.

이 때 삼년상을 마치고 담양에서 종성까지의 멀고 험난한 여정을 혼자서 감당해야했던 복잡한 심리적 상황을 「磨天嶺上吟」이란 시를 통해 표현하였다.[55] 이를 통해 三從을 수행하며 유교적 덕목을 다하는 宋德峯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며, 조선시대 士大夫家 여성의 모습과 官人의 아내들이 갖고 있는 윤리의식을 잘 나타나고 있다.

희춘은 번역작업을 할 때도 德峯에게 자문을 구하고, 夫人이 서책을 정리해주어 주자 책 찾기가 쉬어졌다고 고마워한다. 더불어함께 즐길 줄 알았던 이들 부부는 같이 장기도 자주 두었으며[56] 공동 생일이나 명절, 승진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제법 규모가 큰 집안잔치를 열었다.

> 이날 잔치를 베풀었다. 나의 생신이 初4일이고 夫人의 생신은 20일이기 때문에 적당히 오늘을 잡은 것이다. 겸하여 절친한 사람들을 모아 회포를 풀자는 것인데 夫人의 同生3寸, 4寸, 5寸조카까지를 불렀다. 珍原宰 宋海容도 와서 참여를 했고 君直 中立, 丁贇 李義 宋興 金蘭玉 宋連 宋近 宋適과 南原에서 온 7寸조카 柳基慶 邊潤 得樑 및 光雯이다. 丁은 우연히 왔고 李義는 이웃이기 때문이요, 蘭玉은 門生이기 때문에 참여했다. 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술을 들고 나는 그저 잔을 돌리기만 했다. 또 들어가서 술을 들면서 私婢를 부르고 장고 아쟁을 연주하며 즐겁게 마시다가 저녁 무렵에야 파했다.[57]

---

55) 문희순, 「시화에 구현된 사대부가 여성 한시의 미적 특질」, 『韓國言語文學』 62집, 韓國言語文學會, 2007, pp.268~269.

56) 『眉巖日記草』 券5, 丙子 1월 1일, "與夫人 去包象戲 勝負惟均."

57) 『眉巖日記草』 券2, 庚午 12월 13일, "是日設宴, 以余生辰在四日, 夫人生辰在念日, 酌取今日 兼

위의 내용을 통해 眉巖의 생일은 12월 4일이고, 德峯의 생일은 12월 20일인 것을 알 수 있다. 생일을 중요하게 여겨 매번 술과 음식을 마련하고 歌婢를 불러 즐겁게 회포를 풀었고, 부인의 친정 친족들 뿐 아니라 사위, 딸, 庶女, 손주, 이웃, 심부름하는 奴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술, 숭어, 낙지, 과일들을 직접 들고 오거나 보내왔다.

> 부인의 생일은 딸과 사위가 술자리를 마련했는데 부인의 친정 친족들 뿐 아니라 사위, 딸, 서녀, 손주, 방문한 이웃집부인, 심부름하는 노 등 이들은 술, 숭어, 낙지, 과일들을 직접 들고 오거나 보내왔다.[58]

이러한 공동생일의 풍경은, 家內경제적 합리성과 동시에 그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인지를 말해주고 있다.[59] 또한 이러한 부부생활을 통해서 유희춘이 宋德峯을 얼마나 신뢰하였는가를 보여주며, 실제로 부인을 '同僚'라고 기록하기도 하였다.

> 전일에 尙書를 교정하는데 "마치 술을 만들 때면 麴蘖(누룩과 엿기름)이 되라"에서 傳이 '술에 누룩이 많으면 쓰고 엿기름이 많으면 달다'고 했는데 館中에서 蘖이 무슨 물건인지 몰랐다. 어제 내가 夫人에게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蘖은 보리나 밀을 물에 담갔다가 짚섶에 담아 따뜻한 곳에 놓아 두면 자연 싹이 트고 그것을 햇볕이나 불기운에 말려 찧어서 가루를 만들고 술을 만들 때 넣으면 달게 되니 누룩을 조금만 넣으면 좋습니다."라고 했다. 이날 새벽에 아내와 내가 同僚가 된 셈이다.[60]

爲會切親以夫人同, 生三寸四寸至五寸, 姪也."

58) 『眉巖日記草』卷3·4·5, 壬申,癸酉,乙亥 12월 20일.

59) 박미해, 「16세기 夫權과 婦權의 존재양식 : 眉巖日記에 나타난 유희춘과 宋德峯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18권 1호, 한국여성사학회, 2002.

60) 『眉巖日記草』券4, 甲戌 5월 1일, "頃日 校正尙書作酒醴 爾惟麴蘖傳日 酒麴多則苦 蘖多則甘 館中未詳蘖之爲物 昨日 余以問夫人 答曰 蘖 乃大小麥 水裹藁石 置之熱處 然生芽 取以曝乾 或火乾 擣爲末 入酒則甘 暫和麴末爲佳. 余當以此曉同僚."

이처럼 공동의 생일, 동료애, 학문 자문, 등을 통해 서로가 知己라는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부의 모습은 당시 사회적 요인 외에도 덕봉의 개인적 요소가 많이 좌우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남편이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 부인 송씨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 운영한 점이나, 학문적으로도 뛰어나 남편과의 학문적 소통이 가능했던 점, 그리고 유배지에서 겪은 경제적·심리적·육체적 고초가 이들 부부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가족의 구심점 역할

16세기는 아직 성리학적 가족질서 즉 가부장제가 정착하기 이전이다. 덕봉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으며, 아들 柳景濂은 景陽道 察訪으로 河西 金麟厚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고, 측실에게서 아들 하나를 두었다. 장자는 光先, 차자는 光延이고, 딸은 奉禮이며, 측슬의 자식은 光前이다. 딸은 宣傳官 尹寬中과 혼인하여,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름은 恩遇이다.

우선 아들 경렴은 우활하고 용렬한 인물로 표현될 만큼 뛰어나지도 못하고 재주도 없는 인물이었다. 文科는 물론이고 生進科에 급제한 사실조차 없어 가문을 빛낼 위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차에 영릉참봉이 되었을 때는 가문의 커다란 경사하고 기뻐하였다.[61] 경렴은 관직에 나가거나 처가가 있는 長城에 주로 거주하여, 덕봉과 생활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지만, 潭陽에 왔을 때는 가내 대소사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며느리 金婦는 울산 김씨로 金麟厚의 딸이다. 주로 덕봉이 上京하였을 때 담양집의 살림을 주관한 것으로 보인다.

덕봉은 나들이 할 때 딸과 며느리를 함께 데리고 다녀 즐거움을 나누었다.[62] 또한 며느리가 친정에 갈 때면 가마꾼을 구하고 가마 안을 따뜻하게

61) 『眉巖日記草』 券2, 庚午 11월 12일,

해주었고, 며느리가 돌아올 때면 가마꾼을 족친에게 부탁하고 하인을 보내 행차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한편, 일기에는 아들·며느리보다는 딸·사위에 관련된 기록이 훨씬 많다. 이는 당시까지 혼인 후에 사위가 처가에서 자식을 키우며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사위 윤관중은 해남윤씨 尹巷의 아들이다. 윤항은 아들이 머물고 있는 사돈댁에 쌀·목화·생선 등을 보냈으며 어려울 때는 윤관중이 윤씨 일가에 도움을 청하여 생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윤관중도 그리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다. 덕봉은 사위가 宣傳官이 되자 온 집안과 함께 기뻐하며 사위의 免新禮에 필요한 술과 안주를 준비해 준다. 그러나 관직 생활 내내 주위의 질시가 끊이지 않더니 결국 파직되고 만다.

> 윤관중이 파직당하고 해남으로 가다. …… 관중이 선전관으로 36개월 근무하는 동안 그의 직을 빼앗고자하는 자가 관중을 일컬어 "키도 작고 문벌도 낮다" 했는데 마침내 몸과 재주가 약하여 무릎을 꿇고 말았으니 흙 삼태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공이 무너진 셈이다. 매우 가석하다. 但之(尹巷)를 위해서 아주 한스럽다.[63]

어렵게 얻은 관직에서 파직된 것도 한스러운데 사위는 또 첩까지 얻어 갈등을 일으킨다. 윤관중이 처가살이를 하는 만큼 첩을 집으로 들이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밖에 두고 자주 찾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뿐이었다. 당시 사대부 남성은 첩을 두는 것이 용인되었으나 부인이나 같이 살던 장인·장모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편 作妾을 바라보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에 양반 남성들이 부인 이외에 따로 첩을 두는 것은 거의 보편화된 관행이었다. 眉巖 일가족만 보더라도 그를 포함해서 장인 송준,

---

62) 『眉巖日記草』 券5, 丙子 4월 10일, 178p

63) 『眉巖日記草』 券5, 乙亥 11월 13일, "尹寬中辭歸海南 …… 寬中以宣傳官 勤仕至三十六朔 以謀奪其職者 謂寬中身短門卑 竟坐身材孱劣 所 謂功虧 簣也 可惜可惜 爲但之深恨."

아들 유경렴, 사위 윤관중이 모두 妾을 두고 있었다. 당시 첩을 둔 이유는 사족남성의 관직이나 거주형태 등 생활상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宋德峯도 남편의 오랜 유배생활의 수발을 들어줄 妾을 물색해 자신의 역할을 대리할 첩을 뽑아 노자를 주어 보냈다.[64] 미암은 房岱德이란 첩을 두고 있었다. 미암이 함경도 종성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그의 첩으로 들어와 네 명의 딸을 낳았고, 귀양에서 풀려나 다시 관직에 등용되자 해남으로 내려가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살았다. 1571년 현재 그녀의 나이는 44세였으며 眉巖보다 15세 아래였다. 그녀는 眉巖이 해남에 올 때마다 딸들을 데리고 찾아가 음식과 의복수발・빨래・방청소・잠자리 돌보기 등 그의 시중을 드는 일을 하였다.

유희춘은 그의 妾家를 돌보는데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妾과 첩의 딸인 庶女의 신공을 납부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짝을 찾아 혼인시키고, 贖良[65]까지 시켜 주었다. 덕봉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妾의 존재가 유쾌하지는 않았으며, 妻妾간에 약간의 갈등도 나타난다. 하루는 덕봉이 유희춘에게 첩 房岱德[66]과의 갈등으로 인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 해남에서 부인이 편지하기를 戊子가 성질을 잘 내고 불손하다니 가증스럽다.[67]

선조4년 덕봉은 戊子가 성질을 잘 내고 불손하다는 사실을 전하자, 유희춘

---

64) 그녀는 은진현감이었던 李懼의 외방노비로 일기에는 '첩・小家・아무개 어미・戊子・九叱德'등으로 표현되는데, 그녀의 남동생이 방원생이고, 첩모가 해남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房岱德은 해남에 거주하는 방씨가문의 孼女로 眉巖과의 슬하에 海成·海福·海明·海龜등 4명의 孼女를 두었다.

65) 구완회, 「朝鮮 中葉 士族孼子女의 贖良과 婚姻」, 『경북사학』 8, 1985.

66) 유희춘의 종성 유배생활의 일을 도와줄 첩을 직접 구해 희춘에게 보낸다. 九叱德 은진현감이었던 李懼의 외방노비로 일기에는 '첩', '小家', '아무개 어미', '戊子' 등으로 표현되는데, 그녀의 남동생이 방원생이고, 첩모가 해남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구질덕은 해남에 거주하는 방씨가문의 孼女였던 것으로 보인다.

67) 『眉巖日記草』 卷3, 辛未 6월 12일, "夫人書來 戊子 忿恚不遜云 可憎可憎."

은 전후사정을 살피지도 않고 첩을 비판하였다. 유희춘은 妻妾의 分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첩이 처를 능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한편, 유희춘은 첩과 그의 孼女들이[68] 덕봉을 중심으로 한 가족질서에 편입되기를 바랐으며, 덕봉도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69]

> 加土(墓의 加莎草)의 일 때문에 申鴻을 海南에서 보냈다. 任實의 말과 奴 繼福과 許守를 따라가게 하고 나는 各宅에 單字를 보냈다. 海明에게 鴟頭丸을 보내고 또 누룩 4圓(덩이)을 小家의 성조한 곳에 보냈다. 이는 부인이 생각해준 것이다.[70]

이와 같이 덕봉은 妾과 그의 열녀들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첩을 시켜 유희춘에게 옷을 지어 보내도록 하는가 하면[71] 얼녀들을 자상하게 보살핌으로써 본처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德峯이 배우자에게 첩을 허용한 것은 어디까지나 시어머니가 생존하는 동안뿐이었고, 배우자가 변방에서 외로이 유배생활을 할 때에 국한되었다.

이는 사실상 덕봉이 배우자에게 첩살림을 허락하고 말고를 결정한 셈이었고, 解配 이후 유희춘은 해남의 첩과 편지를 주고받거나 가끔씩 물품을 보낼 따름이었다.[72] 그럼에도 점차 유교적인 婦德이 강조되고 질투가 제한되는 사

---

68) 미암은 구질덕이라는 비첩과의 종성생활을 통해 네 명의 얼녀를 두었고 그들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속량하면서 각각 武弁에게 妾으로 출가하였다. 海成은 居京人인 於蘭萬戶 鄭鴻에게 妾으로, 海福은 武科軍官 金宗麗에게 역시 妾으로, 海明은 武及第인 張以昌에게, 海歸는 인척인 尹行의 얼자 克龍이 배필로 거론되었는데 아마도 이 경우는 妾이 아닌 妻로서 고려된 것이라 여겨지는데 이는 극용의 신분이 일반 사족보다 열등한 얼자로서, 해귀와 같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출가 후 얼녀들은 夫의 임지를 좇았고 자식도 낳았다. 그러나 해성은 수년 후 喪夫하여 下鄕하였으며, 해명은 오랜 병고 끝에 夫로부터 버림을 받는 등 순조롭지 못한 혼인생활을 하였다.

69) 『眉巖日記草』 券2, 己巳 9월 17일, 孼女 海成이 어제 왔다가 오늘 저녁에 갔다. 夫人이 婢를 시켜 護送을 하게 했다. 모든 庶들을 어루만지고 사랑하기를 上谷夫人과 다르지 않다.

70) 『眉巖日記草』 券5, 丙子 2월 19일, "以加土事, 遣申鴻于海南, 任實馬及奴繼福· 許守隨行, 余單字于各宅, 送鴟頭丸于海明, 又送麴四圓于小家成造處, 此則夫人之惠也."

71) 『眉巖日記草』 券1, 戊辰 6월 13일, "夫人書來 戊子 忿恚不遜云 可憎可憎." ; 妾이 답호(예복의 일종) 한 벌, 모시 帖裏(內服)한 벌을 지어 보냈다. 이는 潭陽의 아내가 옷감을 첩에게 보내, 첩더러 이곳으로 지어 보내게 한 것이다.

72) 구완회, 「朝鮮 中葉 士族孼子女의 贖良과 婚姻」, 『경북사학』 8, 1985.

회적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듯 당시 妻・妾관계에서 本妻는 남편의 妾을 포용하고, 한 가족으로써 보필해야하는 어느 정도의 희생이 따르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本妻에게는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그 권한을 보호하는 동시에 가내에서도 남편이나 자식들로부터 그 '婦德'을 인정받게 된다. 이렇듯 本妻는 이를 배경으로 전략적 선택을 통해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가운데 친손녀 奉禮는 늦게 태어나서 다른 손자, 손녀에 비해서 기사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므로 주로 등장하는 가족은 아들 柳景濂의 子 광선(兒名 繼文), 광연(兒名 興文)과 사위 윤관중의 딸 은우이다.

덕봉은 손자의 교육내용과 가르치는 순서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아래의 기사는 그 정황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 부인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하기를 "光延의 성격이 총명하고 글재주가 있어『養蒙大訓』,『小學』등의 책을 읽혀야 하는데 지금『新增類合』같이 어렵고 심오한 글자를 읽게하고 있으니 마치 견고한 성 아래서 군사의 기운만 송상시키는 격입니다. 조금 늦춰주어 문장으로 된 책을 읽히는 것이 낫지 않겠소?" 하니 내가 듣고는 깨달은 바가 있었다.[73]

위의 내용으로 보건대 덕봉은『養蒙大訓』,『小學』,『新增類合』과 같은 교재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손자의 수준에 걸맞은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또한 유희춘이 그 말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학문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통해 가족의 구심점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맡고

---

73)『眉巖日記草』券5, 丙子 1월 11일, "夫人 昨夕語余曰 光延 性聰敏有詞氣 可讀聚句及養蒙大訓 小學等書 而今之讀新增類合艱深之字 譬若頓兵堅城之下 盍姑緩之而令讀成文之書乎 余聞言而悟."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그는 남편이 오랫동안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며 각 가족의 정신적 지주로써 그들을 보살폈기 때문에, 덕봉의 권한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3. 친・인척 교류

가족관계에 있어 당시는 처계나 모계가 부계와 동등하게 대우 받았다고 볼 수 있다.[74] 여전히 전통적인 관습이 일상생활을 지배하며, 유교적 예제보다도 輪廻奉祀와 子女 均分相續 및 壻留婦家婚의 혼속 등이 지속되는 복합적인 사회모습을 보였다.[75]

당시 중요하고 또한 빈번한 교류가 있었던 친족들은 네 부류로 나누어진다. 부계 친족, 사돈 친족, 장인 최부 자손들, 사위 尹寬中이 속하는 海南 尹氏 가문들이다. 이는 宗法的 질서가 완전히 성립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이를 통해 조선 중기 가족관계의 전형을 파악 할 수 있다.

덕봉과 미암의 일가족만 보더라도 그들 부부를 비롯해서 딸과 아들 내외 및 손자들, 일가친척 등 실로 엄청난 가족이 더불어 살았다. 때문에 덕봉은 화목한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였고, 가족구성원들은 그녀를 정신적 지주로 여겼다. 다음 가족간의 유대를 위해 덕봉이 아들·사위·딸 등을 불러 주연을 베푸는 장면 및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시를 소개하고자 한다.

> 남편이 퇴청해 집으로 돌아오자 德峯과 眉巖은 아들 딸 사위를 불러 詩로써 수창하였고, 노비들에게 奚琴을 연주하게 하였다.[76]

---

74) 이수건, 「朝鮮前期의 社會變動과 相續制度」, 『韓國親族制度硏究』, 일조각, 1995.

75) 김경숙, 「16세기 사대부 집안의 제사설행과 그 성격 - 李文楗의 『默齋日記』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98, 일지사, 2000, 16세기 李文楗 집안의 祭祀設行을 통해 당시 당시 士大夫家에서 행해지는 제사의 형태 및 성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사대부 계층에서도 『朱子家禮』에 의한 제사방식이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76) 眉巖日記 草』券4, 甲戌 9월 9일, "至申時歸舍 夫人以重陽佳節 設小酌 令竹梅·末叱德 爲奚琴 景濂·寬中·邊潤以次起舞 吾夫婦甚 恩遇母子亦欣然 寬中倡爲小詩云 慶侍高堂上 秋風日照時 絃歌

三冬宜凍沍　　겨울 석 달은 마땅히 추워야겠지만
春日又何寒　　봄날인데도 어찌 차가운고
如今佳節會　　지금같은 佳節에 모이니
和氣滿靑山　　和氣가 靑山에 가득하구나

「四月八日與尹壻光龍小酌」

4월 8일 사위와 종손자가 찾아와 함께 술을 마셨다. 지난겨울에는 집안에 홍역이 돌고 2월에는 노비가 열병을 앓아 자손들의 건강이 궁금했었는데, 이날 두 사람을 만나보니 마음이 놓였다. '何寒'의 시어에서 보듯, 宋德峯은 자손들의 건강을 걱정하였던 것이다. 4월 8일, 좋은 계절에 온화한 기운이 푸른 산에 가득하니 근심이 사라지는 듯했다. 사위와 종손자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시이다. 자손들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는 대부분의 詩는 평이하면서도 곡진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평소 자손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였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77)

사실 德峯은 가족・친족의 정신적 지주였다. 그녀는 평소 딸과 아들 및 여러 손자들을 기르고 가르쳤으며, 眉巖과 함께 일가친척인 柳光雯, 宋震, 李邦柱 등도 돌봐주었다. 하루는 유광문이 송진에게 德峯의 은혜를 말하면서 눈물을 쏟은 적도 있었다.

光雯이 宋震에게 말하기를, '光雯이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13세에 鍾城에가서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식처럼 귀엽게 길러 주심을 무릅썼으니 … 鍾城에서는 곧 궁한 속에서 할머니가 손수 내 옷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입히시고 자기는 겹저고리 치마를 입고 고초를 겪으시며 추위를 견디셨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잊는단

情興發 斯會百年期景濂次韻 鶴髮俱堂上 斑衣舞此時 吾家無限樂 此外更何期 余次云 紫極承恩日 黃花泛酒時 一堂親五六 同樂太平期 夫人次云 昔日分南北 那知有次時 淸秋佳節會 千里若相期."

77) 송재용, 「宋德峯의 生涯와 詩世界」, 『退溪學硏究』 제17집,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3.

말이오.' 하면서 감격이 극해 눈물이 쏟아졌다고 宋震이 갖추어 말했다.[78]

종손 柳光雯은 일찍이 부모를 잃은 뒤로 늘 眉巖과 德峯 곁에서 살았는데, 두 사람은 마치 그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였다. 유배지 종성에서부터 유희춘 내외와 같이 생활하다가 광문이 본인의 친형제가 살고 있는 珍原으로 떠나게 되자 덕봉은 從孫婦에게 젓가락·수저·국자 등을 챙겨 주었다. 진원에 도착한 광문이 형 光雲이 광문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가 있어 덜 외로울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하기도 하였다.

柳希春은 從孫인 光雯을 데려다 교육시켰으며, 선조 3년(1570) 12월에 高楫 딸과의 혼사까지 모든 일을 조부모가 주관하고 있다. 광문은 결혼 후에도 장인 집과 유희춘의 집을 왕래하며 생활하였고, 이때 광문이 오가는 길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배려를 하였다.

그 중에서도 柳希春은 解配 이후 妻家를 중심으로 그 경제적・친족적 기반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처가식구와 유희춘은 수시로 드나들면서 가정의 大小事를 의논하였다.[79] 이들 宋氏들은 유희춘의 祖 와 父의 제사에 참례하였으며, 유희춘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처남인 宋廷秀・宋廷彦과는 형제 이상의 관계를 지녔다. 유희춘은 송정수 장녀의 혼사에 관여하여 曺景中을 사위로 맞도록 주선하기도 하고, 또 송정수의 둘째 사위가 李邦柱인데 유희춘은 그를 무장현감에 천거되도록 해 주었다.[80] 덕봉의 親族들이 방문하게 되면 초면일 경우 상대의 나이·父系·外孫·妻系를 물어서 자신과 寸數를 따져본다. 가까운 친척은 안으로 불러서 만나보고, 나머지는 바깥 사랑방으로 나가서 접견하였다.

---

78) 『眉巖日記草』 券5, 丙子 2월 7일, "光雯於宋震曰 光雯遺失父母 無所依賴 年十三到鍾城 … 至如在鍾城困窮之中 大母主親製我衣 先以衣我 躬著袂裙 苦楚以度寒 此恩何可忘也 因感極泣下."

79) 『眉巖日記草』 券5, 丙子 1월 30일, "宋震來謁,逐日源日源,或有故亦不出,二三日一來."; 6월 15일, "宋震來去,逐日源日源,不能盡記."

80) 『眉巖日記草』 券3, 辛未 11월 20일, "夜二更, 李佐郎(邦柱)妻氏簡通云, 茂長宰被臺諫劾能, 而明日政事, 乞速通銓曹, 余卽簡請于姜參判尙之."

이상을 통해 살펴본 가정생활을 통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억압받고 희생 받는 수동적인 여성상을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다. 그보다는 오히려 때로는 완화하게 부탁하고 때로는 매섭게 질책을 가하면서 한 집안을 이끌고 나가는 적극적인 모습이 주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宋德峯의 家事經營

16세기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것들이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급자족적 가족사회였기다. 당시엔 의식주를 비롯한 집안의 경제적 측면을 여성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여성은 늘 바쁠 수 밖에 없었다. 이 시기에는 채소・식량・의복・땔감 등 의식주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가족 내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거나 이웃 간의 선물로 충당했고, 자녀교육이나 질병치료, 종교활동도 집안 어른들의 손에 의해 해결되었다.

때문에 독자적인 주도권과 자율성을 인정하여 여성의 에너지를 남성과 가정이라는 제한된 영역 내에서 최대한 발휘하도록 이끌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때 부인의 지위는 절대적이었다. 남편은 주로 대외적인 영역을 주로 담당했다면, 부인은 奉祭祀接賓客 및 형제・친척・노비와의 관계에서부터 집안 경제경영과 집안의 혼인・상속 등 각종 大・小事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

1. 경제적 책임

德峯은 가족들의 일상생활에서 奉祭祀接賓客, 살림장만, 경제적 책임, 정신적 지주, 기타 구휼까지 실로 방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물론 眉巖도 집안에 드나드는 물건을 꼬박꼬박 일기에 기록할 정도로 가정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근친, 수학, 유배, 관직 등의 이유로 자주 집을 떠나 생활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德峯이 안팎의 집안일을 거의 다 주관하였다.[81]

이로 인해 그의 家政運營 능력은 살림주관 뿐만 아니라 家舍新築, 토지 및 재산증식을 통해서 더욱 돋보인다. 우선 家産을 증식하기 위해 서울에서는 쌀을 빌려주고 이자를 계산해서 받기도 하고[82], 고향에서는 지방관의 도움으

81) 정창권,「『眉巖日記』에 나타난 宋德峯의 일상생활과 창작활동」,『語文學』78輯, 2002.

로 적잖은 토지를 매입하기도 하였는데 주로 가까운 일가친척에게 토지를 사들이며 재산을 증식하였다.[83] 이러한 덕봉의 경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1) 家舍新築, 토지 및 재산증식

유희춘은 부친 柳桂隣이 崔溥의 사위가 됨으로써 집안이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확보했지만, 부친이 出仕하지 모하고 외조부와 형이 사화에 연루되어 화를 당했으며 유희춘 자신도 20년간 유배생활을 했기 때문에 재산을 확대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유희춘이 귀양에서 풀려나 선조의 신임 속에 고위 관직을 역임하면서 상속과 매매, 개간 등의 방법을 통해 재산을 늘려 나가 만년에는 해남과 담양 등지에 田 500마지기, 沓 600마지기의 농지와 100여口의 노비를 소유했다. 전형적인 중소지주라고 할 수 있다.[84]

유희춘은 해남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으나, 洪州宋氏와 혼인한 이후에는 처가인 潭陽 太谷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의 오랜 유배생활에 따라 해남의 舊舍는 퇴락하여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따라서 해배된 이후 家舍新築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었고 재출사한 다음 해(1568) 3월부터 시작하여 3여년에 걸쳐 해남 서문밖에 家舍를 新築하였다. 이후 유희춘은 그들의 거처를 다시 妻家 인근의 창평 수국리로 옮기고, 선조 8년부터 造舍를 시작하여 선조 9년 2월까지 다시 이곳에 家舍를 신축하게 된다.[85] 家舍新築에 대해서도 宋德峯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덕봉의 능력을

---

82) 『眉巖日記草』 券3, 癸酉 2월 23일, "부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북으로 오면서 짐을 싣고 왔던 말을 팔아가지고 미곡을 사서 내놨다가 받아들이는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83) 1568년 1월 眉巖이 휴가를 받아 담양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조카 이형으로부터 채마밭을 구입하고 또 과거에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도한다. 하지만 그녀가 집중적으로 토지를 사들인 시기는 말년에 창평으로 낙향한 뒤인 1575년 12월이었다. 그달 2일에는 용산의 누이에게 목화밭을 사고, 25일에는 쌀 12섬으로 동쪽 언덕 위에 있는 송정순의 논 3마지기를 사며, 바로 다음날에는 빚을 낸 쌀 10섬과 소 1마리로 김난옥의 논 4마지기를 산다.

84) 한영우 저, 『한국사 인물 열전』 2, 돌베개, 2003.

85) 이성임, 「16세기 柳希春家의 海南造舍와 物力동원」, (『인하사학』 제10집, 2003), 2002.

남편 유희춘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客室의 堂은 板으로 된 4間에 1樑을 걸고 房2間은 너무 크지도 너무 높지도 않아 適中하다. 남쪽 書室 2間은 온돌을 높고 앞이 환하게 하여 글을 볼수 있으니 실로 내마음에 맞다. 그러나 이것은 부인이 생각해내어 계획한 것이다..[86]

> 豆樂이 남쪽 담장에 기와를 덮는데 넓직한 기둥을 세워 넓혔고 그 높이는 평지로부터 한 男子 키의 길이에 半이 더 있다. 담장 안이 넓어서 목화나 깨를 널어 말릴 수도 있고 장독도 벌여 놀 수 가 있다. 이는 부인의 계책이다.[87]

창평 집은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로 구성된 집이었는데, 덕봉이 노후생활을 위해 결혼 초기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하나씩 지은 집이었다. 이 집을 보고 희춘이 지은 시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88]

규모를 세우기를 누가 기특히 했나	營度規模誰是奇
부인의 마음 솜씨 班垂와 갔다.	夫人心匠似班垂
남쪽에 서실 열어 새롭게 환하고	南開書室新明朗
북쪽의 서까래 밑에 다락을 놓았도다.	北邊樓厥桶楣
늙은이 창에 기대어 거드름 피우고	老叟倚窓長寄傲
자손들 책을 펴고 글을 읽으리.	兒孫開卷效吾伊
문득 선친의 이사하란 말씀을 생각하니	却思先子遷居訓
우리 자손에게 백세의 복을 열어주셨도다.	啓我雲仍百世禧.

희춘은 부인이 大廳규모를 묘하게 세운 것을 감탄하여, 중국 고대의 이름

---

86) 『眉巖日記草』 券5, 丙子 1월 27일, "客室板堂四間一梁 而房二間 不大不高而適中 南邊書室二間 爲溫突 而窓向明足以看書 實愜我心 然此乃夫人經營規畫之功也,"

87) 『眉巖日記草』 券5, 丙子 6월 2일, "豆樂、蓋瓦南牆 建活柱以廣之 其高自平地 爲一男子長有半餘矣 牆內寬闊 可鋪木綿·荏子 而列醬甕矣 此夫人之計也."

88) 『眉巖日記草』 券5, 丙子 2월 15일.

난 장인 班垂(古巧人)에 빗대어 부인의 설계 솜씨를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德峯은 남편이 유배에서 풀려나 복직한 뒤로 상당히 많은 토지를 사들였다. 또한 德峯은 과거에 잃어버린 토지를 되찾기도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宋庭芝가 己酉(明宗 4)年에 우리집 암소를 빌려갔다가 잡아먹어 버리고 그 홈대 다릿목의 논 2斗 5升지기를 바쳤는데 그 뒤 7年 乙卯에 다시 宋興에게 팔아먹었다. 그런데 그 文書가 전일에 나와서 宋興에게 보여주니 興이 말을 못하고 승복을 하였으므로 오늘은 光雯을 시켜 그 논의 한계를 둘러보고 오게 했다.[89]

1549년 사촌 宋庭芝가 德峯의 암소를 잡아먹고서 자신의 논을 바친 일이 있었는데 그 토지를 다시 일가친척인 宋興한테 이중으로 팔아버렸다. 우연히 그때의 문서를 찾아내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가 집중적으로 토지를 사들인 시기는 창평으로 이사한 뒤인 1575년이었다.

> 부인이 龍山의 누이에게 목화밭을 샀다.
> 부인이 쌀 12섬으로 동쪽 언덕 위에 있는 송정순의 논 3마지기를 샀다.
> 부인이 빚을 낸 쌀 10섬과 소 1마리로 김난옥의 논 4마지기를 샀다.[90]

이때 그녀는 빚을 내면서까지 한꺼번에 여러 곳의 토지를 사들였는데, 주로 가까운 일가친척에게 구입하였다. 그리고 유희춘이 내려 왔을 때 함께 그 동안의 가계와 재산 기록을 대조해 본다.

한편, 덕봉과 희춘은 노비를 다스리는데 있어서 은혜와 위엄을 병행하는 방식을 보인다.[91] 아끼더라도 나쁜 점을 파악하고, 미워해도 그 장점은 간과

---

89) 『眉巖日記草』 券1, 戊辰 정월 8일, "以宋庭芝己酉年 貸我家雌牛屠食 納其筧橋畓二斗五升落只 後七年乙卯 重復放賣於宋興 券發於頃日 以示宋興 宋興無言而服 今日令光雯 往觀疆界而來."

90) 『眉巖日記草』 券5, 乙亥 12월2일, "夫人買綿田於龍山之妹"; 12월25일 "夫人以 中米十二石, 買東岸 宋求禮畓三斗落只"; 12월26일 "夫人以債米十石·牛一隻, 買金蘭玉畓四斗落只."

하지 말라는 선친의 경계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아래의 사례들을 통해 부부와 노비의 모습을 살펴보자.

> 石丁이 주인을 섬기기를 성심껏 하고 속이지를 않는다. 夫人이 辛未年 해남에 있으면서 병이 났는데 성심을 다해 구호를 했으므로 우리 부부가 특별히 음식을 주고 부인은 베 半필을 줬으며 나는 붓 먹을 줬다. 石丁이 감읍했다.[92]

> 오늘 낮에 夢勤 大工을 매를 쳤다. 그것은 어제 隨行을 하다가 멋대로 離脫을 했기 때문이다.[93]

> 부인이 致山의 母를 초청해왔다. 이때에 나이가 92세였다. 음식과 식량을 줬다. 부인이 사람을 아껴주고 善을 좋아하며 늙은이를 공경하고 어린애를 사랑하며 궁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에게 善導로 가르치니 부인중에 아주 드문 사람이다.[94]

'우리부부 양쪽에 딸린 노비가 거의 백여 구가 된다.'[95]라는 일기의 기록처럼 부인 宋德峯과 함께 백여 명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대부분 노비에게 의존해서 생활하였다. 일어날 때 방에 등잔불을 켜는 것부터 잠들 때 이부자리 보는 것까지 노비들은 그들의 손과 발이 되었다.

이러한 노비를 대하는 부부의 태도는 단순히 상하간의 지배와 복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비를 효율적으로 부리기 위해서는 노비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사람들은 '노비에게 은혜

---

91) 이성임, 「조선중기 어느 양반가문의 농지경영과 노비사환」, 『진단학보』80, 1995.

92) 『眉巖日記草』 券5, 丙子 3월 9일, "石丁 事主有誠 不爲欺詐 夫人辛未年(宣祖 4)在海南疾病 盡心救護 故吾夫婦別饋食 夫人給布半匹 余賜筆墨 石丁感泣."

93) 『眉巖日記草』 券1, 戊辰 2월 2일, "今午笞夢勤大工, 以昨日隨行而擅離也."

94) 『眉巖日記草』 券5, 丙子 2월 16일, "夫人招延致山之母, 時年九十二, 饋食與糧, 夫人愛人好善, 敬老慈幼, 賙窮恤匱, 誨人以善, 婦人中絶無而僅有者也."

95) 『眉巖日記草』 券5, 丙子 3월 8일, "今年戶籍, 入於潭陽, 令景濂正書, 吾夫婦兩邊奴婢, 幾至一百口."(금년에 戶籍이 潭陽에 들므로 景濂으로 하여금 正書를 하게했다. 우리 부부에 딸린 양쪽의 奴婢가 거의 百口가 되는데 戶籍을 海南에 하지 않고 담양에 할려니 내 마음이 편치 못하다.)

를 베풀되 상전으로서 위엄도 잃지 않는 것', 즉 '恩威竝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평소 은혜로써 노비를 대해 그 마음을 얻고, 잘못을 범하면 위엄으로써 대해야 노비가 주인에게 복종한다고 여겼다.

위의 사례는 노비에 대한 德峯의 마음 씀씀이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유희춘은 부인이 노비의 늙은 어미를 데려다 음식과 식량을 주니 사람을 아끼고, 善을 좋아하며, 늙은이를 공경하고, 어린애를 사랑하며, 궁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에게 선도로 가르치니 부인중에 아주 드문 사람이라며 칭찬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반은 노비를 자신의 手足처럼 부리는 대신에 그들의 일상생활을 책임져야만 하였다. 철 따라 옷감을 주어 옷을 지어 입도록 하기도 하고, 노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매달 월급을 지급했음은 물론, 만약 노비가 병들면 의원을 불러다가 치료까지 해주었다.

이 밖에도 宋德峯은 재산증식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96] 서울에서는 쌀을 빌려주고 이자를 계산해서 받기도 했으며[97] 그녀는 살고 있던 집을 주인이 비워달라고 하자, 거처할 집을 구하지 못해 걱정이 태산 같았다. 다행스럽게도 집주인이 다음 해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통보해오자, 그녀는 한시름을 놓게 되었다.[98] 이처럼 그녀는 가정 경제가 위기에 이를 때면 더욱 헌신적으로 가계를 유지해가는 적극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 와중에도 덕봉은 時祭나 忌日祭 준비 및 가문의 혼인 등 家內 각종 대소사를 주관하며 정성을 다하였다.[99] 이렇듯 16세기 여성은 안팎의 집

96) 『眉巖日記草』 券5, 乙亥 11월 16일, "夕燈下 與夫人議加計" ; 12월 2일, "夫人買綿田於龍山之妹", 12월 25일, "夫人以中米十二石 買東岸宋求禮畓三斗落只".

97) 『眉巖日記草』 券3, 癸酉 2월 23일, "부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북으로 오면서 짐을 싣고 왔던 말을 팔아가지고 미곡을 사서 내놨다가 받아들이는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98) 『眉巖日記草』 券3, 癸酉 8월 28일, "頃日 此舍主沈同知外孫女 曹胤申之産也 欲以今秋來入此舍 昨夕 吾夫妻方患 未得所遷 沈生報云 吾孫女俟明年秋 乃入此舍 今年則不來 勿以遷動爲憂 一家大喜."

99) 『眉巖日記草』 券1, 癸酉 2월 20일, "蓋此 時享 始追祭曾祖也 昧爽行祭 祭物豊潔 夫人內修之力居多."

안일을 거의 다 주관함으로써 실질적인 집안의 주도권자였다. 당시 여성의 집안일은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그런 만큼 사회적으로도 충분한 대우를 받았다. 즉 하는 일이 많은 만큼 존경도 따랐던 것이다.

2) 살림주관

아침저녁의 음식장만을 비롯해서 집안청소, 잠자리 돌보기 등 소소한 일부터 德峯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물론 그것들의 실제 노동은 대부분 집안 여종이 담당했지만 그녀의 관리감독 하에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고, 노비들을 자신의 手足처럼 부리는 대신에 그들의 일상생활을 책임져야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옷감을 구입해서 물을 들이고 실제 옷을 짓는 의복수발도 하였다. 옷감은 서울에서는 물건을 주고 구입했지만 고향에서는 누에를 치거나 삼을 재배해서 직접 생산하였다. 그리고 '부인이 얼음 5덩어리를 갖다가 쪽물을 들였다.'[100]라는 일기의 기록처럼 7월에는 얼음을 가져다가 옷감에 물을 들였다. 나아가 틈틈이 가족들의 의복을 지었다. 1569년 8월에는 관복을 짓다가 잠시 眉巖을 불러서 입혀보고는 옷이 긴지 짧은지를 재어보았고,[101] 1574년에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 여종이 옷 짓는 것을 감시하다가 냉증으로 구토를 하기도 하였다.[102]

> 아내가 무명 甲方衣, 甲捧地, 單天益을 갖추어 보냈다. 아내가 밖으로 成造하는 데에 시달리면서 안으로는 옷을 짓는데 애쓰니 그 고초가 심하다.[103]

---

100) 『眉巖日記草』 券4, 癸酉 7월 13일, "家人, 取氷五丁來染藍."
101) 『眉巖日記草』 券2, 己巳 8월 1일, "夫人請, 著新堂上吉服, 以驗其長短也."
102) 『眉巖日記草』 券4, 甲戌 9월 17일, "夫人患冷證微嘔吐, 以監裁衣, 坐板堂故也."
103) 『眉巖日記草』 券1, 戊辰 4월 22일, "細君備送木綿甲方衣·甲捧地·單天益來, 細君外勞於成造, 內勞於裁衣, 其苦甚矣."

위의 내용에서도 당시 덕봉의 가사노동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조금이나마 짐작 할 수 있었다. 또한 德峯은 畵工을 불러다가 병풍을 만들고, 匠人을 불러 가마를 수리하는 등 집안에 필요한 살림도 직접 장만하였다. 1574년 9월 畵工을 불러 쌀 두말을 주고 여덟 첩의 병풍을 그리도록 한다. 그리고는 도배장이를 불러다가 틀을 짜고 발라서 병풍을 만들도록 하는데, 완전하고 치밀하여 볼 만하였다. 56세 되는 해 1576년 2월에 宋德峯은 솜씨를 발휘하여 대청을 멋들어지게 꾸몄다.[104] 그녀는 미적 감각도 뛰어나 집을 쓸모 있게 꾸미는데 에도 일가견을 보였다.[105] 이에 남편이 '모두가 부인의 成物하는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의 사려가 미칠 바가 아니다.'라고 감탄을 아끼지 않는다.

한편, 家內 살림을 주관하는 여성의 역할은 당시의 생산과 기술 수준으로는 막대한 노동량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본업으로 규정해 특수한 의무가 부여되었으나 기본적으로는 남녀의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의 원칙을 주축으로 성차를 인정하고 서로 보완적 관계가 이루어 졌다고 본다.[106]

2. 봉제사・접빈객

조선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많은 규범들은 禮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禮俗은 인간의 생애주기와 밀접한 冠·婚·喪·祭를, 유교적으로 해석한 『朱子家禮』를 수용하면서, 유교 가부장 제도를 조선 사회에 안착시켰다. 太宗 이후에는 사회질서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주자가례』를 적극 활용하고 보급하기에 이르렀고, 그에 따른 禮의 실천을 생활화하는가 하면, 禮的 사회질서 구현을 위한 교화에 힘썼다.

---

104) 『眉巖日記草』 券5, 丙子 2월15일, "感歎夫人規畫大廳之妙."
105) 『眉巖日記草』 券5, 丙子 6월 2일, "豈樂 蓋瓦南牆 建闊柱以廣之 其高自平地 爲一男子長有 半餘矣 牆內寬闊 可鋪木綿 荏子 而列醬甕矣 此夫人之計也."
106) 정옥자 외, 「조선 여성은 억압받았는가?」, 『전통과 현대』 12호, 2000, p.105.

그러나 여전히 유교적 예제보다도 전통적인 관습이 일상생활을 지배하며, 輪廻奉祀와 子女 均分相續 및 壻留婦家婚의 혼속 등이 지속되는 과도기적인 분위기를 보인다.[107] 또한 위정자 또는 성리학자들이 이상으로 생각했던 제도와 실제 운용되는 제도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오늘은 祖母 太夫人薛氏의 忌日이지만 사세에 따라 제사를 못 지낸다. 16일 時享[108]이 가깝기 때문이다[109]
>
> 제사를 11일로 물려 정했기 때문에 다시 光州에 사람을 보내 알려 줬다.[110]
>
> 조고의 기일이나 전후에 모두 제사가 있으므로 기일제를 지내지 못하였다.[111]
>
> 제사 후 素食을 그만두니 내 나이 오십구세이기 때문이다.[112]

柳希春도 祖上에 대한 禮를 지키는 데에 융통성을 보이고 있으니 아프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제사가 겹치면 제사를 지내지 않거나 연기하며, 유희춘이 59세가 가까워지자 素食을 그만둔다. 이러한 집안 내에서의 祭祀에 대한 융통성은 그 자체가 아직 철저하지 않은 장자의 위치를 보여주며 이것은 전체적으로 과도기적인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희춘은 기본적으로 자기 조상의 제사는 자기가 지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제사를 家系繼承이 아니라 단순한 死後奉養으로

---

107) 김경숙, 「16세기 사대부 집안의 제사설행과 그 성격 -李文楗의 『默齋日記』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98, 일지사, 2000, 16세기 李文楗 집안의 祭祀設行을 통해 당시 당시 士大夫家에서 행해지는 제사의 형태 및 성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사대부 계층에서도 『朱子家禮』에 의한 제사방식이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8) 시향은 時祭와 같은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는 四時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독립된 뜻으로는 시향이 享祀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니, 향사를 지내러 갈 때 시향을 지내러 간다고도 한다. 향사는 鄕祠, 書院, 廟宇 등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옛날에는 사시에 지냈으나 대개는 일년에 봄, 가을 두 번 지내며, 경제적으로 빈곤한 곳에서는 일년에 한 번 지내기도 한다.

109) 『眉巖日記草』 券2, 庚午 8월 11일, “乃祖妣忌 而以余氣寸不快 未能設祭.”

110) 『眉巖日記草』 券2, 庚午 12월 1일, “以祭先退定于十一日 故更伻通于光州”

111) 『眉巖日記草』 券5, 乙亥 12월 9일, “祖考忌日 而前後皆有祭 故姑未行忌日祭.”

112) 『眉巖日記草』 券1, 辛未 1월 8일, “夕開素 以在行祭後 而又五十九故也.”

보는 관념이 강했기 때문에 종법적 제사승계와 다른 봉사관행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113] 유교적 전통을 강하게 띠고 있는 한국의 전통 祭禮는 부모님과 선조들이 살아 계실 때에 행하던 효행의 연속적 개념으로 행해왔다.

즉, 부모님을 생전에 봉양한 것처럼 돌아가신 뒤에도 제사로써 정성을 다하여 모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 의식은 봉행을 통하여 효를 행한다는 형식적 측면 외에도 가족, 친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측면도 매우 크다.[114]

조선 초기의 『주자가례』에 따른 이 유교식 제사는 실제 보급과정에서 이전의 전통식과 조화를 이루는 특이한 형태로 변형되었다. 忌日祭의 중시와 3代奉祀, 輪廻奉祀, 外孫奉祀 등의 제사 형식이 여전히 나타났다.

> "丈曾祖 別侍衛의 忌日이 내일인데 祭祀의 順次를 당한 宋大福이 가난해서 제사를 지낼 수 없으므로 부인이 특별히 代設을 해준다."[115] (윤회봉사)

> "아침에 外祖 錦南先生(崔簿)의 제사를 지냈다. 忌辰이기 때문이다. 제사를 지내고나서 또 丈·岳(장인 장모) 두 분께도 제사를 지냈다. 돌아온 기쁨을 告한 것이다. 제물이 모두 갖추어졌다. 丈岳의 제사에는 夫人도 참사했다."[116] (외손봉사)

위의 내용을 통해 당시 아들과 딸, 本孫과 外孫의 구별 없이 자녀들이 번갈아 돌아가며 지내는 윤회봉사와 외손봉사에 대한 기록을 엿 볼 수 있었다. 반면 朱子家禮에서 중요시 했던 것은 忌日祭보다는 四時制였다. 그러나 16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제사가 중시되고 강화 되어, 사대부 집안에서는 대체로

---

113) 정긍식, 「16세기 奉祀財産의 實態」, 『고문서연구』 제9 · 10집, 1996.
114) 김경숙 저, 「忌祭祀와 墓祭」, 『조선시대 생활사』 2, 2002.
115) 『眉巖日記草』 券5, 丙子 4월 6일, 以丈曾祖別侍衛忌日在明 而富次宋大福 貧婁不能祭 夫人特爲之代設."
116) 『眉巖日記草』 券2, 己巳 10월 24일, "祭外祖錦南(崔溥)先生 爲忌辰也 暈祭 又祭丈·岳兩主 告歸慶也 祭物皆備 丈祭 夫人亦祭."

『朱子家禮』를 가정의례의 主로 삼고, 전래한 민간의 예속을 참작하여 각 집안마다 일정한 예절규범을 세웠다. 1568년과 1569년 10월 14일 두 차례 德峯의 친정어머니 제삿날을 통해 당시의 제사풍속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 忌日祭를 丈岳(장인 장모) 두 분의 位에 지냈다. 오늘은 外姑의 忌辰인데 풍속의 관습대로 丈人까지 함께 제사를 모셨으니 아내집의 가풍에 따른 것이다.[117]

> 食後에 外姑의 忌日祭를 지내기 위하여 文殊寺로 갔다. 바로 齋室인 것이다. 송군직 宋震은 主人으로 가고 景濂과 尹寬中도 따라갔고 徐希益 蔡元瑞 李義는 客으로 왔다. 祭를 지낸 뒤에 두부밥을 먹고 해가 기울 무렵에 왔다.[118]

德峯이 서울에 올라오기 전까지 자신이 직접 주관해서 제사를 지냈고, 德峯이 올라온 뒤부터는 지방과 축문을 쓰고 제례를 안내하는 역할은 희춘이 하고, 제수를 장만하는 역할은 德峯이 하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먹거리가 풍족하지 않아 祭需를 준비하는 일은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이에 남편은 '제물이 깨끗하고 풍비했으니 부인이 준비한 힘이다.'라고 기록하면서 부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다.[119]

또한 1569년 10월 14일 德峯의 친정어머니 제사는 文殊寺라는 절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이는 고려시대 절에서 齋를 올리던 관습이 16세기 중엽까지도 상당히 남아 있었고, 유교적인 제례방식이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였음을 뜻한다. 또한 여전히 유교적 예제보다도 전통적인 관습이 일상생활을 지배하며, 輪廻奉祀와 子女 均分相續 및 壻留婦家婚의 혼속 등이 지속되는 과도기

---

117) 『眉巖日記草』 券1, 戊辰 10월 14일, "設忌日祭于丈岳兩主之位 以今日乃外姑之忌辰 因俗習幷祭丈人 從細君之家法也."

118) 『眉巖日記草』 券2, 己巳 10월 14일, "食後 爲過外姑忌日祭 詣文殊寺 卽齋室也 宋君直·宋震以主人 景濂·尹寬中 亦隨行 徐希益·蔡元瑞·李義 以客室祭後 食豆腐飯 日昳 乃來."

119) 『眉巖日記草』 券5, 丙子 4월 7일, "自昨夕至今晨 夫人 措辦曾祖別侍衛忌日祭 甚精備 令."; 어제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부인이 증조 別侍衛 忌日의 제사준비를 마련하는데 심히 精하고 갖추어졌다.

적 사회의 한 단면을 제시하고 있다. 120)

祭需준비는 당시 안주인의 몫이었다. 祭祀 하루 전인 10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祭需를 준비하였는데 때마침 任百英이 유자 10개와 전복 7고지를 선물하고, 권동보가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보내온다. 李敬國도 사기 30개와 대접 5개를 보내와 알맞게 제사에 쓰게 되니 더욱 감사하다. 재계도 하루 전부터 시작하는데 목욕은 하지 않고 희춘이 바깥방에 나가서 사위와 함께 자는 것으로 그친다.121)

이를 통해 16세기 사대부 가정의 모습은 우리에게 전통적인 가족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한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시대에 일관되게 지속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부계 중심의 가족질서, 그에 따르는 여성의 역할은 성리학적 예제가 일상생활의 규범이 되면서 정착된 조선 후기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祭祀와 함께 손님을 접대하는 接賓客도 이 시기 사대부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일거리 가운데 하나였다. 평소 眉巖집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왔다. 德峯이 서울살림을 주관하기 시작한 9월 12일만 하더라도 丹城令과 崔僉知를 비롯해서 舍人司의 아전 金光弼, 전 현감 金應禎 등 무려 열 명의 손님이 찾아왔다. 그때마다 眉巖은 바깥사랑으로 나가 접견하였다. 또 손님이 찾아오면 안주인은 으레 차와 술, 밥 같은 음식을 대접하기 마련이었다.

그밖에도 희춘을 자주 찾아온 사람들은 청탁자들로, 거주지인 전라도 지역에서 빈번하게 찾아왔고, 그들이 가져오는 선물들은 당시 무시할 수 없는 집안의 수입원이었다. 기타 眉巖과 친분을 맺는 사람들은 문과 급제 삼형제로

---

120) 김경숙, 앞의 논문 참조, 『默齋日記』를 통해 이 당시 성주지방 인근에서도 불교적 색체가 강한 齋宮, 影堂들이 상당수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121) 『眉巖日記草』 券1, 戊辰 10월 12일, “禮賓副正李昌 送二甕來 朴君汝柱 送栗一斗來.” ; 13일, “校書正字任百英 上來相見 以柚子十枚·全鰒七串爲貺.” ; “以齋出宿于外 尹寬中伴宿” ; 4일, “黃州內禁衛 李敬國 遺沙器三竹·大楪五介來 適及用於祭祀 尤爲感慰.”, “權沃川 送生蛤·醢蟹來.”

저명한 許省, 許筠, 許筠 형제와 『東醫寶鑑』의 저자인 許浚도 자주 希春을 방문해서 약을 두고 갔다. 임진왜란 때 이름을 남긴 金千鎰도 그가 아낀 인물이었다. 『眉巖日記』에 등장하는 인물만으로도 16세기 역사를 충분히 그릴 수 있을 듯하다.

이처럼 당시 한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상당한 능력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祭需를 준비하는 만만치 않은 일부터 시작해서 孫子인 光先[122]의 결혼식에 필요한 혼수를 장만하는 것 등의 집안 대소사를 주관하는 것 역시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랐다. 家內 大·小事를 주관하는 것은 여성에게 많은 노동과 경제적 부담을 주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한 여성상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는 여성의 능력을 발휘하고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Ⅴ. 맺음말

122) 『眉巖日記草』 券5, 丙子 1월 11일, "부인이 이미 채단 등 모든 물건을 갖추고 또 笠子와 耳掩을 찾아 亍貴石과 玉石에게 주니 그들이 모두 좋아하며 떠났다." ; 『眉巖日記草』 券5, 丙子 2월 12일. "光先이 新婚의 의복을 입었는데 모두가 精하고 아름다우며 꼭 맞다. 부인이 지어준 것이 많다. 光先이 은으로 꾸민 갓을 쓰고 紅紫의 옷을 입으니 몸도 과히 짧지 않고 용모도 단아하여 예쁘니 온 집안이 놀라고 기뻐한다." ; 『眉巖日記草』 券5, 乙亥 11월 16일. "아침에 獒樹察訪 丁至가 와서 인사를 했다. 그는 옛 친구 璜의 子이다. 내가 정월에 光先이 南原 金司果의 집으로 장가를 들 때에 圍繞가 되어달라고 말을 했더니 승낙을 하고 신랑을 맞을 때에 獒樹에서 묵고 옷을 갈아입고 驛馬를 타고 장가를 들도록 하라고 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여성의 생활상에 있어서 일대 전환기였던 16세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한 시대를 살다간 사대부가 여성 宋德峯의 家政運營과 生活에 대해 살펴보았다. 송덕봉의 家政運營는 크게 송덕봉의 家系와 家政運營의 배경 및 家庭生活과 家事京營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갔다.

첫째, 송덕봉의 가계와 가정운영의 배경에서는 洪州宋氏 의 호남 지역에서 위상과 역할을 정리하고, 당시 사대부들이 혼인을 매개로 유대를 강화시켜 나가는 측면을 살펴보았다.

우선 송덕봉의 가계를 살펴본 바로는, 호남에서 학문뿐만 아니라 門閥까지 겸비한 洪州宋氏 집안의 宋德峯과 호남 사림을 대표하는 善山柳氏 집안 柳希春의 만남을 통해 당시 호남 사림들이 혼인을 통해 家系를 잇고 家統과 家格을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壻留婦家의 혼속이나 거주형태에 있어서도 처가살이가 등장하는 모습을 통해 宗法秩序가 아직 뿌리내리지 않은 당시 과도기적 사회상도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의춘의 미암일기와 정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미암일기』는 유희춘이 저술한 개인일기로, 일상의 정보를 알차게 담고 있어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는데 더 없이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유희춘의 저술 가운데 家政運營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庭訓」이다. 「庭訓」은 부친 유계린이 지은 「居家篤行十條」를 바탕으로, 돌아가신 아버님의 가르침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당시의 조선조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시기 위해 四禮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름의 敎化書를 만들어 점차 변해가는 향촌질서를 안정시키려고 하였다. 이때 선비의 인격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규범을 학문적 연마에 앞서 도덕적 실천이라고 보고, 자기완성을 위한 기본방법과 성격을 『走者家禮』와 『小學』의 실천규범에서 찾으려 노력하였다.

둘째, 송덕봉의 家庭生活은 同僚的 夫妻관계와 정신적 지주로써 가족의 구

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송덕봉 그리고 친·인척 교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남편과 부인의 부처관계에서는 공동의 생일, 동료애, 학문 자문, 등을 통해 서로가 知己라는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부의 모습은 남편이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 부인 송씨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 운영한 점이나, 학문적으로도 뛰어나 남편과의 학문적 소통이 가능했던 점, 그리고 유배지에서 겪은 경제적·심리적·육체적 고초가 이들 부부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가족의 구심점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맡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그는 남편이 오랫동안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며 각 가족의 정신적 지주로써 그들을 보살폈기 때문에, 덕봉의 권한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당시 중요하고 또한 빈번한 교류가 있었던 친족들은 네 부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었다. 부계 친족, 사돈 친족, 장인 최부 자손들, 사위 尹寬中이 속하는 海南 尹氏 가문들이다. 이는 宗法的 질서가 완전히 성립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이를 통해 조선 중기 가족관계의 전형을 파악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柳希春은 解配 이후 妻家를 중심으로 그 경제적・친족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상 송덕봉의 家庭生活을 통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억압받고 희생 받는 수동적인 여성상을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다. 그보다는 오히려 때로는 완화하게 부탁하고 때로는 매섭게 질책을 가하면서 한 집안을 이끌고 나가는 적극적인 모습이 주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송덕봉의 家事京營에서는 家舍新築, 토지 및 재산 증식, 살림주관 등의 경제적 책임을 맡고 있는 점과 가내 大小事를 주관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우선 송덕봉은 家舍를 짓고,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가정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더욱 헌신적으로 家計를 운영하는 적극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그 와중에도 덕봉은 時祭나 忌日祭 준비 및 가문의 혼인 등 家內 각종 대소사를 주관하며 정성을 다하였다.

이렇듯 16세기 여성은 안팎의 집안일을 거의 다 주관함으로써 실질적인 집안의 주도권자였다. 당시 여성의 집안일은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그런 만큼 사회적으로도 충분한 대우를 받았다. 즉 하는 일이 많은 만큼 존경도 따랐던 것이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송덕봉의 家庭生活과 家事運營은 단순히 집안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정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관리적인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家庭에서 보다 확대하여 '家政'이라는 보다 능동적인 개념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한편, 본고를 통해 그동안 여성의 적극성이 가부장제의 유지 강화에 스스로 일조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해나가는 능동적인 여성의 모습, 나아가 남녀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차별화한 공존의 관계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전통적 여성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다방면에서 시도되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1. 자료

柳希春,『眉巖日記草』, 朝鮮史料叢刊, 朝鮮史編修會 編, 朝鮮總督府, 昭和 11년, 1936.

柳希春,『眉巖集』, 한국문집총간 34,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88.

柳希春,『眉巖日記草』, 담양문화원, 1990.

全南大學校 博物館,『古文書』4冊, 1996.

2. 저서

고영진,『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혜안, 200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역, 『조선 양반의 일생』, 글항아리, 2009.

송재용,『眉巖日記硏究』, 제이앤씨, 2008.

이종범,『사림열전』1, 아침이슬, 2006.

이종범,『사림열전』2, 아침이슬, 2008.

유희춘 저, 이백순·이해섭 역,『다시 읽는 眉巖日記 제1집~제5집』, 담양군, 2004.

정창권,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사계절, 2005.

최재석,『韓國家族制度史硏究』, 일지사, 1983.

한국고문서학회,『조선시대 생활사』2, 역사비평사, 2000.

한국고문서학회,『조선시대 생활사』3, 역사비평사, 2006.

3. 논문

고영진,「15·16세기 朱子家禮의 施行과 그 意義」,『한국사론』21, 서울대학교국사학과, 1989.

_____, 「16세기 湖南士林의 활동과 학문」, 『남명학연구』 3집,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3.

_____, 「이황학맥의 호남 전파와 유학사적 의의」, 『韓國의 哲學』 32집, 慶北大學敎 退溪硏究所, 2003.

_____, 「양반관료 유희춘의 관계망」, 제112회 한국역사연구회 공동연구발표회 자료집, 2010.

구완회, 「조선중엽 사족얼자녀의 속량과 혼인 -『眉巖日記』를 통한 사례검토 -」, 『경북사학』 8, 1995.

김경숙, 「16세기 사대부 집안의 제사설행과 그 성격 - 李文楗의 『默齋日記를 중심으로 -」, 『한국학보』 98, 일지사, 2000.

김미선, 「崔溥 『漂海錄』의 기행문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옥렬, 「전통사회에 있어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 『한국학입문』, 1983.

김종성, 「眉巖 柳希春의 漢詩 硏究」,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태길, 「조선시대의 선비와 오늘의 한국」, 『학술원논문집』 39, 대한민국학술원, 2000.

김태완, 「유희춘의 제사설행과 친족관계망」, 제112회 한국역사연구회 공동연구발표회 자료집, 2010.

박미해, 「16세기 夫權과 婦權의 존재양식 -『眉巖日記』에 나타난 유희춘과 宋德峯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여성학』 제18권 1호, 한국여성사학회, 2002.

_____, 「16세기 양반가의 가족관계와 家父長權-柳希春의 『眉巖日記』를

중심으로-」,『古文書硏究』21집, 한국고문서학회, 2002.
_____,「조선중기의 혼수·위요·인척 관계 - 유희춘 家의 혼인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65집, 한국사회사학사, 2004.
_____,「유교적 젠더 정체성의 다층적 구조 -『미암일기』,『묵재일기』,『쇄미록』,『병자일기』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제79집, 2008.
박정자,「조선초기의 여성 言路」,『중앙사론』8, 중앙대사학연구회, 1980.
배현숙,「선조초 교서관활동과 서적유통고 - 柳希春의『眉巖日記』分析을 中心으로」,『書誌學硏究』18, 1999.
송재용,「『眉巖日記』硏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_____,「『眉巖日記』에 書誌와 史料的 價値」,『퇴계학연구』12,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8.
_____,「眉巖 柳希春의 生涯와 學問」,『퇴계학연구』10,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6.
_____,「眉巖 柳希春의 詩世界: 漢詩와 時調를 중심으로」,『동양학』3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0.
_____,「『眉巖日記』에 나타난 人間 柳希春」,『퇴계학연구』16,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2.
_____,「『眉巖日記』에 나타난 占卜과 兆朕, 꿈과 解夢에 대한 一考察 」,『漢文學論集』25輯, 2007.
윤희면,「眉巖 유희춘의 생애와 저술」,『금호문화』9, 1984.
이동인,「미암 유희춘의 박학과 서적을 통해 본 관계망」, 제112회 한국역사연구회 공동연구발표회 자료집, 2010..
이민주,「『眉巖日記』를 통해 본 복식의 유통 양상과 그 특징」,『역사민속

학』23, 2006.

이성임,「朝鮮中期 어느 兩班家門의 農地經營과 奴婢使喚 ; 柳希春의『眉巖日記』를 중심으로」,『진단학보』80, 1995.

_____,「朝鮮中期 柳希春家의 物品購買와 그 性格」,『한국학연구』9,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998.

_____,「16세기 柳希春家의 海南造舍와 物力 동원」,『인하사학』10, 2003.

_____,「16세기 양반관료의 外情 - 柳希春의『眉巖日記』를 중심으로」,『고문서연구』제23집, 한국고문서학회, 2003.

_____,「조선 중기 양반관료의'稱念'에 대하여」,『조선시대사학보』29권, 조선시대사학회, 2004.

이순구,「조선초기 宗法의 수용과 여성지위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논문, 1995.

_____,「조선 초기 주자학의 보급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청계사학』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학회, 1986.

이종범,「조선중기 洪州 宋氏家 의 교유와 활동」, 2010

정재훈,「眉巖 柳希春의 生涯와 學問」,『남명학연구』,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3.

정창권,「『眉巖日記』에 나타난 宋德峯의 일상생활과 창작활동」,『어문학』제78호, 한국어문학회, 2002.

_____,「16세기 여성시인 宋德峯 작품집」,『여성문학연구』9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_____,「日記를 통한 우리 생활사 엿보기」,『한국학연구』제18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정호훈,「眉巖 柳希春의 학문활동과『治縣須知』」,『韓國思想史學』 제29輯, 2007.

조원래,「士禍期 호남사림의 學脈과 김굉필의 도학사상」,『동양학』 제25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5.

최주희,「유희춘의 경제적 관계망과 선물의 재정적 성격」, 제112회 한국역사연구회 공동연구발표회 자료집, 2010.

황수정,「眉巖 柳希春 文學 硏究」,『韓國漢詩硏究』 14, 韓國漢詩學會, 2006.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사학과	학번	20077010	과정	석사
성 명	한글 채 민 미	한문 蔡 民 美		영문 Chae Min Mi	

주 소	광주시 서구 쌍촌동 1298-2번지
연락처	e-mail : 205181@hanmail.net
논문 제목	한글 16세기 사대부가 여성의 家政運營과 生活 -『眉巖日記』에 나타난 宋德峯을 중심으로 -
	영문 A Study of the Gentry Women`s Management and Life in the 16th century - Focusing on the Song Duckbong in『MiAmIlGi』-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과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 이용의 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 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O) 반대( )

2010 년 8 월

저작자 : 채 민 미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